

##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시맨틱 데이터 기반 지식 콘텐츠 개발 연구

### -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정보학 전공 김광우

#### <목차>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2) 연구의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1) 연구범위
- 2) 연구 방법
- 3) 선행연구 분석

#### II. 역사문화자원의 조사 및 수집

##### 1. 목포의 지역적 특성

- 1) 근대도시 목포의 형성
- 2) 근대도시 목포의 이중성

##### 2. 목포 역사문화자원 조사

- 1) 조사범위
  - 가. 건축자원
  - 나. 인물
  - 다. 단체
  - 라. 사건
- 3) 조사 방법
  - 가. 문헌조사
  - 나. 실측조사
- 4) 조사 결과
  - 가. 역사자원
  - 나. 건축자원

##### 3. 목포 역사문화자원 수집

- 1) 자료의 수집
- 2) 연구자원의 분류
- 3) 주요 연구자원
  - 가. 문화유산
  - 나. 역사자원
  - 다. 건축자원
  - 라. 3D 모델 대상 건축물

#### III. 역사문화자원 아카이브 플랫폼 설계

##### 1. 아카이브 플랫폼

- 1) 백과사전적 아카이브
- 2) 스토리텔링 플랫폼

##### 2. 지식 콘텐츠 편찬

- 1) 지식 편찬자(Curator)
- 2) 콘텐츠 편찬 시스템

##### 3. 온톨로지 설계

- 1) 문화유산 온톨로지
- 2) 클래스 설계
- 3) 관계성 설계

#### IV. 역사문화자원 아카이브 플랫폼 구현

##### 1. 디지털 큐레이션

- 1)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
- 2) 역사 지도(historical map)
- 3) 메타버스(Metaverse)

##### 2. 디지털 스토리텔링

- 1) 정의도시 목포
- 2) 근대도시 목포
- 3) 예술도시 목포

#### V.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 1. 인공지능과 시맨틱 데이터

- 1) 인공지능과 문화유산
- 2) 문화유산 빅데이터

##### 2. 교육 프로그램

- 1) 지역학 교육
- 2) 해외 한국학교육

#### VI. 결론 및 제언

## II. 역사문화자원의 조사 및 수집

### 1. 목포의 지역적 특성

#### 1) 근대도시 목포의 형성

호남의 곡창지대를 품은 영산강이 서해안의 바닷길과 만나는 길목에 자리한 목포는 일찍부터 곡물을 수송하는 조운로(漕運路)와 왜적의 방비를 위한 군사 요충지로서 주목받았다.<sup>2)</sup> 그러나 지명으로서 목포는 조선 전기까지 나주와 무안에 각각 존재해서<sup>3)</sup> 행정은 물론 왜적의 방비에도 혼란을 초래했고, 이 문제가 해소된 것은 1439년 목포에 만호(萬戶)가 임명되어 현재의 목포가 유일성을 지닌 지명이 되었기 때문이다.<sup>4)</sup> 1501년에는 목포진(木浦鎭)에 성을 쌓아 경계를 강화했고<sup>5)</sup>, 1895년 폐진(廢鎭) 전까지 1천여 명의 군사가 주둔할 만큼 목포진을 중요하게 여겼다.<sup>6)</sup> 군사 요해처(要害處)로서 목



【그림 II -1】

무안목포진지도(務安木浦鎭地圖)<sup>1)</sup>

1) 『務安木浦鎭地圖』(187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https://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0440\\_00](https://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0440_00)

1871年(高宗 8) 列邑地圖 臚上승에 따라 1872年(高宗 9)에 全羅道 務安木浦鎭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彩色地圖이다.

지도는 불과 개항 25년 전의 목포진 모습으로 성내에 관아와 창고 등 다양한 시설이 있고 포구에 있는 戰船·兵船·防船 등 군선의 규모로 미루어 다수의 군사가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고석규, 「목포진과 목포 사람들」, 『목포개항 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3) 이해준, 「목포의 역사-개항 이전사」, 『목포시의 문화유적』, 국립목포대학교박물관, 1995, 13~21쪽  
이생연, 「목포의 땅 이름」, 『목포시사』, 목포시, 1995, 41~42쪽

이해준은 『고려사』, 『동국여지승람』, 『세종실록지리지』 등 문헌 기록을 비교하여 현재의 나주지역과 무안지역에 목포라는 지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지명의 유래에 대한 몇 가지 설을 소개했는데, 지명설에 대해 이생연은 일제강점기에 비롯된 근거 없는 설이라고 반박하였다.

4) 『세종실록』 85권, 세종 21년 4월 15일 임진 2번째 기사, ○議政府據兵曹呈啓: “務安縣 木浦, 寶城郡 呂島等, 皆倭賊入寇要害之地, 與兵船泊立之處遙隔. 請於木浦, 呂島置兵船, 差遣萬戶.” 從之.

국사편찬위원회>조선왕조실록>세종실록>세종 21년>세종 21년 4월>세종 21년 4월 15일

[https://sillok.history.go.kr/id/kda\\_12104015\\_002](https://sillok.history.go.kr/id/kda_12104015_002)

5) 『연산군일기』 40권, 연산 7년 1월 6일 을묘 1번째 기사, ○乙卯/正言李鐵鈞啓: “今築務安, 木浦城. 農月不可役民, 請停之. ” 不聽. 鐵鈞及持平許禎又啓洪伯慶事, 傳曰: “雖鞫, 不可加罪, 其棄之. 且出妻乃宿計, 非一朝一夕之事. 況唐陽君非輕妄人, 豈不詳量? 且伯慶公緘內亦云: ‘因大妃慈旨出之.’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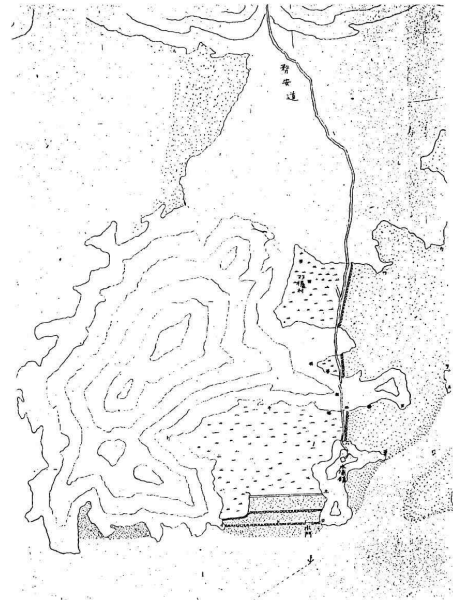
국사편찬위원회>조선왕조실록>연산군일기>연산 7년>연산 7년 1월>연산 7년 1월 6일

[https://sillok.history.go.kr/id/kja\\_10701006\\_001](https://sillok.history.go.kr/id/kja_10701006_001)

6) 이생연, 「목포의 땅 이름」, 『목포시사』, 목포시, 1995, 46쪽

포는 임진왜란 시기에 충무공 이순신이 목포진 앞에 자리한 고하도에 머무르며 군선을 정비한 것으로 증명된다.<sup>7)</sup> 목포진의 조운선(漕運船) 관리는<sup>8)</sup> 빈번하게 출몰하는 왜적을 방비하는 것과 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했다. 목포는 개항 직전까지도 호남지방의 세곡을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운송하는 중요한 연결점으로 역할하고 있었다.<sup>9)</sup> 군사 요충지와 물류 교통의 중심지로서 목포의 지리적 이점은 제국주의 시기에 열강의 관심을 끄는 요인이 됐고, 개항 문제를 둘러싸고 각국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했다.

목포개항은 1894년 조선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체결된 조일잠정합동조관(朝日暫定合同條款)을 배경으로 한다. 청일전쟁을 앞두고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은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조일잠정합동조관을 체결하고 제4항에 “조선 정부는 전라도 연안에서 통상항구 일처(一處)를 개항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했고, 이에 따라 조선 주재 일본 영사 우치다(內田定槌)<sup>11)</sup>가 1895년 1월 목포와 고부만을 시찰한 후 목포를 개항장의 적지로 보고하였



【그림 II -2】 우치다(內田定槌) 보고 목포진 지형도(1895.1)<sup>10)</sup>

『목포지』(1914)에서는 개항 무렵에 만호청(목포진)을 중심으로 40여 호의 마을이 황폐하게 존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생연은 『호남읍지』(1899), 『여지도서』(1757~1765), 『무안읍지』(1789)의 기록을 바탕으로 목포진에 1천여 명의 군졸이 주둔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 7) 최성환, 「목포의 海港性과 개항장 형성과정의 특징」, 『한국민족문화』 39,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원, 2011 p172 재인용, 노승석 옮김, 『이순신의 난중일기 완역본』, 동아일보사, 2005, 474쪽 “목포에 이르렀다가 寶花島(=고하도)로 옮겨 정박하니, 서북풍을 막을 만하고 배를 감추기에 아주 적합했다. 그래서 육지에 내려 섬 안을 돌아보니, 지형이 매우 좋으므로 진을 치고 집을 지을 계획을 세웠다.”
- 8)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6월 8일 무진 2번째 기사, ○政院啓曰: “木浦萬戶趙世弼, 漕船三十餘艘致敗, 漕卒亦多沈沒. 雖無治罪之律, 當重繩之, 以戒後人. 昔唐 劉晏, 以能運漕船稱之. 其運之也, 每十艘一將軍領之, 一運之後, 鬚髮無不班白. 必法令嚴而後, 知所以戒之矣.” 傳曰: “當問諸三公.” 국사편찬위원회>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중종 4년>중종 4년 6월>중종 4년 6월 8일 [https://sillok.history.go.kr/id/kka\\_10406008\\_002](https://sillok.history.go.kr/id/kka_10406008_002)
- 9) 최성환, 앞의 글(2011), 173쪽 재인용 『全羅道關草』, 1887년 5월 29일 完營에서 議政府로 보낸 문서, 1888년 6월 6일 完營에서 議政府로 보낸 문서 “木浦로 운반해 둔 쌀을 賃船에 싣고 서울로 수송하라 하여 監官 李興基.金世泓에게 운반을 명해 1886년 輪船未納條를 수대로 出給했다는 報告”, “務安 등 13邑 雜ト 및 三主人米를 木浦로 수송하고 裝載輪便하라는 關을 받았다는 報告”
- 10) 梁尙湖, 『韓國近代の都市史研究』, 東京大学 工学博士論文, 1993, 243쪽. 재인용
- 11) 內田定槌(うちだ さだつち), 한국 최초의 일본 영사로 미국과 브라질 등에서 활동한 외교관이다. <https://ja.wikipedia.org/wiki/内田定槌>

다.<sup>12)</sup> 그러나 1895년 5월부터 시작된 개항 협상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일본 정부가 요구한 특별거류지(特別居留地) 문제 때문이었다. 러시아와의 전쟁을 계획한 일본 정부는 청일전쟁 중 인천에서 겪은 거류지 문제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인천에서 군대 주둔 문제로 각국의 협조를 얻지 못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sup>13)</sup> 이 원인을 인천의 협소한 전관거류지 때문이라고 판단한 일본 정부는 목포에서는 이를 피할 방도로 일본영토와 다른 특별한거류지를 고집하고 있었다.<sup>14)</sup> 이 시기에 일본의 공권력 집단이 조선 정부의 친러시아 행보를 저지하고자 을미사변(乙未事變, 1895.10.8)을 자행했다. 조선에서는 일본의 폭거에 민심이 분노하고, 국제관계에서는 삼국간섭으로 요동반도(遼東半島)를 반환하게 되자<sup>15)</sup> 수세에 몰린 일본을 대신해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해졌다. 결국 조선 정부는 아관파천(俄館播遷, 1896.2.11)을 단행하면서 개항 협상을 중단하고 말았다.<sup>16)</sup> 고종이 1년간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는 동안 러시아의 내정간섭이 심해졌고<sup>17)</sup> 일본 정부는 특별거류지 요구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sup>18)</sup> 환궁한 이후에도 양국 정부의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결국 1897년 10월 1일 자로 진남포와 목포를 개항한다는 전격적인 결정이 내려진

12) 국사편찬위원회,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1권, 1994, 117쪽.

“목포는... 전라도 연안의 하나의 良港임에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내지로 통하는 데는 위로 沙湖江이 있고 왼쪽으로 들어가서 羅州와 務安에 도달하기까지 배로 통하며, 또 육상에는 장래 거류지로서 신시가지를 건설하는 데 적당한 땅이 있다. 이 지역의 현재 지형은 각별히 광대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쉽게 이것을 확장할 수 있는 지리를 가졌고...”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주한일본공사관기록&통감부문서>駐韓日本公使館記錄 11권>三. 木浦甌浦大同江開港一件>(3) 古阜灣 및 木浦視察 復命書

[http://db.history.go.kr/id/jh\\_011r\\_0030\\_0030](http://db.history.go.kr/id/jh_011r_0030_0030)

13) 김정섭 옮김, 『목포부사』, 목포문화원, 2011, 72~73쪽

14) 徳間一芽, 『개항기 목포 이주 일본인의 도시 건설과 도시 생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5쪽 각주 12번 재인용

藤村道生, 「朝鮮における日本特別居留地の起源」, 名古屋大学文学部研究論文集 史学12, 1964, 8쪽.

후지무라에 의하면 특별거류지는 일본영토와 다른 것은 다음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1) 일본인의 거주 및 영업을 위하여 (2) 개항장 일부를 확정된 거류지이며 (3) 거기서는 일본인 이외의 토지 구매를 허락하지 않고 (4) 행정권은 일본 정부의 대표가 독점적으로 행사하여, 조선 정부 혹은 각국 사신의 개입을 거부한다. (5) 또한 거류지 유지비는 일본 정부가 국고에서 지출한 경비로 충당된다. 따라서 (6) 미리 조선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일본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류지 제도를 균일로 시행하여, (7) 경찰관 또한 국고로 지출한 비용으로 상주시킴으로써 경찰권은 일본 정부가 독점한다. (8) 전시에는 군사기지 혹은 병참기지로 사용할 수 있다.

15)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요동반도를 차지하자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반대하여 일본과 청은 요동 환부 조약(遼東還附條約, 1895.11.8)을 체결했다.

16) 김정섭 옮김, 『목포지』, 향토문화사, 1991, 33쪽

17) 김정섭 옮김, 앞의 글, 65쪽

러시아는 일본과 영국 등을 견제하기 위하여 개항 자체를 반대했는데 그 이유로 “1. 연안에 세 곳의 개시장이 있어 충분하고 2. 모자라서 다시 두 항구를 개항하고자 한다면 남의 참견을 기다리지 말고 자주적으로 할 일이라고. 그 뜻은 일본만 이롭고 그 밖에는 균점하는 바가 적기 때문에 막는 것”이라 했다.

18) 박찬승, 「목포 개항의 경위」, 『목포개항 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123쪽

다.<sup>19)</sup> 결과적으로 목포개항은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1876)에 의해 타율적으로 개항된 부산·원산·인천과 달리 자율적인 칙령개항(勅令開港) 방식으로 공동거류지(共同居留地)를 관철한 조선 정부의 자주 개항 사건이었다.

2년간 진행된 목포개항 과정은 조선 정부와 일본 정부의 서로 다른 목적을 잘 보여준다. 열강들의 패권 다툼 속에서 활로를 고민하던 조선 정부는 관세에 주목했고,<sup>20)</sup> 근대국가로서의 대한제국의 출발과 내정개혁을 위한 자금 수입원으로서 관세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sup>21)</sup> 관세 문제는 이후 군산·마산·성진의 개항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졌고, 이들 개항장도 목포개항의 선례를 따라 칙령개항(勅令開港)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자주 개항이었음에도 증남포목포각국조계장정(甌南浦木浦各國租界章程)은 조선 정부에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는 인천제물포각국조계장정(仁川濟物浦各國租界章程)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이었다. 제국주의 시기 조선 정부의 외교력은 불평등 조약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관세수입이 조선 정부의 주된 관심사였다면, 일본 정부의 목적은 전략요충지로서 목포를 확보하는 것이었다.<sup>22)</sup> 러시아와 전쟁을 앞두고 대규모 군사 주둔이 가능한 치외법권 지역과<sup>23)</sup> 전쟁 수행을 위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목포개항을 재촉했다.<sup>24)</sup> 그러나 목포에서 특별거류지 관철에 실패한 일본 정부는 공동거류지 문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모색했다. 공동거류지의 토지를 독점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토

19) 박찬승, 앞의 글(1997), 126~128쪽

박찬승은 평일이 아닌 1897년 7월 3일 토요일 밤에 의정부가 두 항구를 개항한다는 안건을 처리한 것은, 일본의 이목을 따돌리려는 의로도 해석했다.

20) 박찬승, 앞의 글(1997), 129~130쪽 각주 44)~46) 재인용

김순덕, 「1879-1905년 關稅政策과 關稅의 운용」, 『한국사론』15, 1986, 302~303쪽  
조선 정부의 친러파는 일본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해 러시아 차관을 도입하여 일본 차관을 상환하려고 했다. 이는 관세 수입의 증가를 예상하고 해관세(海關稅)를 담보로 러시아와 차관 약정을 맺는 방식이었다. 1896년 11월 탁지부대신서리 박정양과 포코틸로프는 300만 루블의 예비차관 약정을 맺었고, 러시아는 이를 통해 조선의 관세 관리를 러시아 재정고문의 관할에 두고자 했다. 이에 일본에게 우호적이었던 총세무사 브라운은 일본은행 차관 300만원 가운데 200만원을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러시아 차관의 도입을 저지했다.

21) 박찬승, 앞의 글(1997), 130 재인용

김순덕, 앞의 글(1986), 333쪽  
목포개항 이듬해 관세는 직전과 비교해 1.5배 정도 늘었으며, 전체 조세 수입에서 19.8%를 차지해 지세 다음의 비중이었다. 1897년부터 1900년 사이 관세는 차관의 원리금 상환, 세관·감리서·경무서의 경비와 대외공사관의 경비, 외국 유학생의 경비 등으로 쓰였으며, 일부는 황실에 상납되었다.

22) 德間一芽, 앞의 글(2010), 4쪽 각주 10)번 재인용

梁尙湖, 『韓國近代の都市史研究』, 東京大学 工学博士論文, 1993, 224쪽.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대비하여 목포 각국거류지 면적을 원래 계획보다 넓게 설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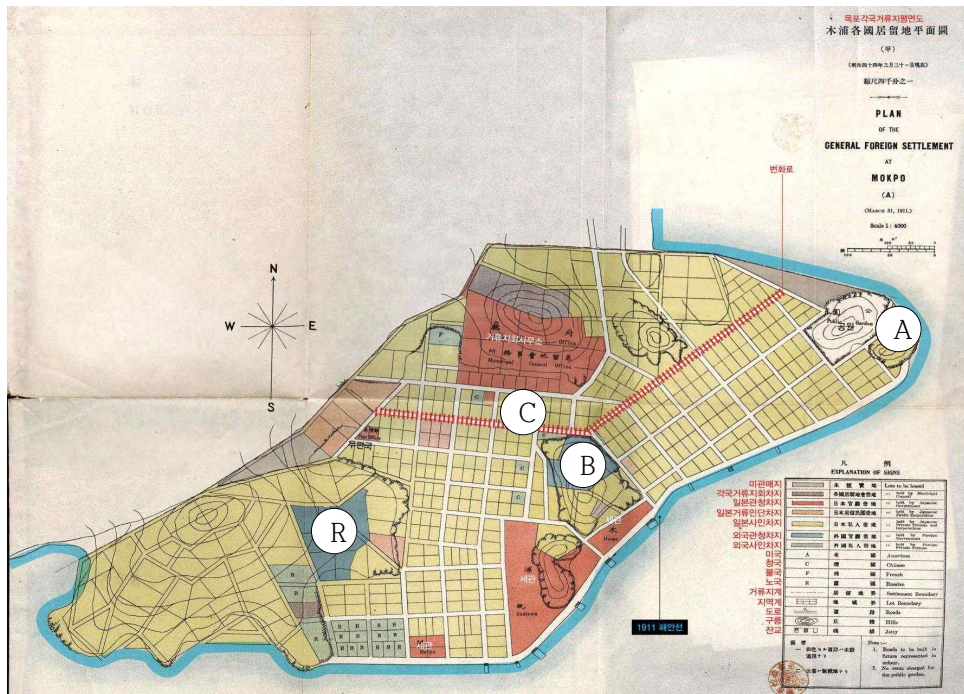
23) 김정섭 옮김, 앞의 글(2011), 72~73쪽

“인천에서 일본 전관거류지의 협소로 어려움을 겪었던 일로 보아서나, 또 목포가 각국 거류지 제도임을 생각하여 영사관 터를 여유 있게 하여, 후일에 대비하려는 외무성은, 이미 줄어든 면적을 후일 경매를 통하여 사들여 당초 예정했던 총면적 52,900 평방미터를 마련하였는데...”

24) 德間一芽, 앞의 글(2010), 6쪽



지경매 자금을 모아 상인을 장려하는 것이었다.<sup>25)</sup> 그 결과 목포 개항장 전체 경매 면적의 93.5%를 일본인이 차지해 이전의 개항장에는 유례가 없는 독점적인 거류지를 확보하게 되었다.<sup>26)</sup> 영국과 러시아는 영사관부지(領事館敷地)만 마련한 채 영사를 파견하지 않아 자국민의 진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sup>27)</sup> 목포에서 공동거류지 또는 각국 거류지라는 표현은 ‘일본인 마을’의 또 다른 명칭에 불과하게 됐다.



【그림 II -3】 목포각국거류지평면도(木浦各國居留地平面圖)(甲)28

A: 미국 상업지 B: 영국 영사관 부지 C: 중국 상업지 R: 러시아 영사관 부지

개항장 목포에서 기회를 찾고자 누구보다 빨리 움직인 사람은 부산에서 활동하던 일본 상인들이었다. 목포개항이 논의되는 동안 부산 무역에 타격을 주어 부산 발전에 유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부산의 일본인 상인들은 목포개항 반대운동

25) 김정섭 옮김, 『목포지』, 향토문화사, 1991, 50~51쪽

1대 목포 일본영사로 부임하기 전 히사미즈(久水三郎)가 한 임무에 대해 “일본 상인을 충분히 장려해서 토지경매에 미리 자금을 준비하기 위하여 동경에 있을 때 일이 잘 되어 가다가 부임을 출발하기 위하여 부득이 중단...高田局長에게 부탁하였으니...” 라 인용하며, 그 결과 “다행히 목포는 오직 소수의 중국인이 약간의 지구를 사서 점포를 내는 외에는 거류지의 실권은 아주 일본인이 장악하여 일본 전관거류지와 다름없는 형편”이라 평했다.

26) 徳間一芽, 앞의 글(2010), 23쪽 재인용

梁尙湖, 앞의 글, 226~228쪽

27) 김정섭 옮김, 앞의 글(2011), 70쪽

소수의 중국 상인이 토지경매에 참여하여 목포에 정착하려고 했으나 청일전쟁과 목포배화사건(木浦排華事件, 1931)을 겪으며 많은 사람이 중국으로 돌아갔고, 러시아와 영국은 영사관 부지만 확보한 채 영사를 파견하지 않다가 러일전쟁 후 러시아가 취득한 토지는 전부 일본인에게 팔렸다.

28) 목포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 정비계획, 2020, 176~177쪽 재인용

『木浦各國居留地平面圖(甲)』(1911.4.31),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소장

을 벌였다.<sup>29)</sup>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다도해의 해산물과 영산강 일대의 평야에서 생산되는 쌀을 선점하고 있던 부산 상인들이, 목포개항으로 인해 호남 상권이 침해 될 것을 염려했던 때문이었다.<sup>30)</sup> 역설적인 것은 목포개항 반대운동을 벌이다 태세를 전환한 부산 상인들이 가장 먼저 목포로 이동했고, 향후 이들이 목포 상권을 주도했다는 점이다.<sup>31)</sup> 소수의 미국인과 중국인도 이른 시기에 목포로 이주했는데 미국인은 주로 기독교 선교사 가족이었고, 중국인은 포목상이나 음식업을 하는 상인과 철공·건축기술자가 많았다.<sup>32)</sup>

내국인들은 인근의 나주·영암·해남·무안 출신과 부산·인천·경성·원산 등지에 있던 상인들이 많았다.<sup>34)</sup> 전라도를 제외하면 경상남도 출신자가 가장 많았고,<sup>35)</sup> 특별히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인물도 있었다.<sup>36)</sup> 반대로 전라남도 출신자가 많이 이동한 개항장은 부산과 마산이었는데,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출신자의 인구이동 유사성이 흥미롭다.<sup>37)</sup> 두 지역의 상호 이동은 인접한 지리적 조건이 가장 큰 요인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두 지역 간의 심리적 유사성을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추정할 근거는 신흥도시 청진에서 찾을 수 있다. 1930년 당시 청진은 14개 부

【표 II - 1】 1930년 부 지역에 거주한 조선인 인구의 비이동 및 도별 출생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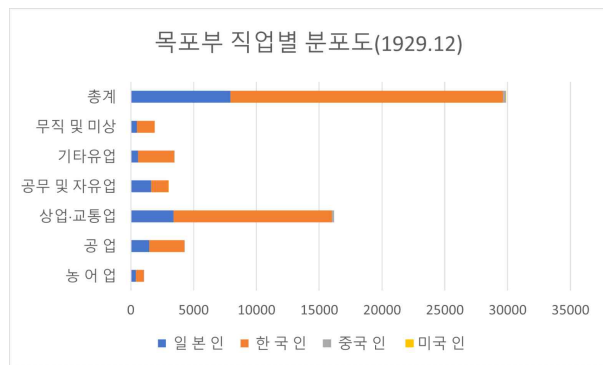
O	D	서울	인천	개성	군산	목포	대구	부산	마산	신의주	평양	전남포	청진	원산	합총
비이동		59.24	29.78	77.70	24.51	26.04	39.72	33.34	46.50	21.47	36.81	27.92	18.05	33.69	54.52
경기		21.56	47.62	13.72	5.84	3.67	1.91	1.39	1.35	1.35	1.50	1.96	5.57	8.43	2.95
강원		1.75	0.95	0.39	0.21	0.16	0.24	0.38	0.05	0.38	0.30	0.13	11.46	9.08	1.21
충북		2.26	2.15	0.23	1.02	0.30	1.47	0.89	0.20	0.14	0.17	0.07	0.67	0.66	0.32
충남		4.21	8.44	0.49	19.67	1.10	0.83	0.69	0.31	0.24	0.22	0.15	0.66	0.97	0.46
전북		1.10	0.65	0.36	31.33	5.22	0.88	0.75	0.37	0.10	0.13	0.12	0.28	0.24	0.20
전남		1.16	1.34	0.28	8.83	57.13	0.99	3.50	1.48	0.26	0.19	0.57	3.14	0.64	0.18
경북		1.79	1.16	0.64	2.30	1.05	45.16	16.10	3.19	0.36	0.30	0.16	3.11	1.98	0.69
경남		1.26	2.01	0.67	4.44	4.06	7.94	42.15	45.85	0.52	0.24	0.42	5.52	1.85	0.45
황해		2.08	3.88	3.96	0.71	0.25	0.20	0.17	0.11	1.37	6.72	19.94	3.67	6.52	0.74
평북		0.88	0.47	0.33	0.06	0.17	0.11	0.10	0.16	66.41	7.93	4.43	1.17	2.14	0.76
평남		1.42	1.06	0.88	0.87	0.49	0.31	0.16	0.08	6.47	44.77	43.78	4.36	9.79	2.09
함북		0.24	0.10	0.03	0.01	0.11	0.05	0.06	0.01	0.02	0.12	0.02	13.70	0.80	0.79
함남		0.92	0.29	0.28	0.17	0.16	0.11	0.16	0.21	0.41	0.48	0.27	27.26	22.99	34.43
일본 등		0.13	0.07	0.05	0.04	0.11	0.07	0.16	0.15	0.52	0.12	0.06	1.38	0.23	0.21

굵은 수치는 각 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중에서 상위 5개 출생지(도)별 인구 비율을 표시한 것임.

출처 : 이정섭(2017)<sup>33)</sup>

- 29) 목포지편찬위원회, 『목포지』, 1914, 10~11쪽
- 30) 최성환, 「개항 초기 목포의 도시화 과정」, 『목포시사 ① 항도목포』, 목포시, 2017, 368 재인용  
佐堀伸三, 『榮山浦에서의 日本人町の 形成』, 2000, 6쪽
- 31) 대표적인 인물로 高根信禮, 福田有造, 山野瀧三이 있다. 高根信禮는 목포거류민회를 이끌며 사업 활동과 일본인 이익에 앞장섰으며, 福田有造는 부산의 거물 상인이었던 福田增兵衛의 양자로 목포에서 福田農事株式會社, 木浦航運合名會社 등을 설립하였고 목포상업회의소 회두를 역임했다. 山野瀧三은 木浦海運(株) 사장, 목포부회 의원, 상업회의소 회두를 역임했다.
- 32) 양세영, 「개항기 및 일제 강점기 전기(前期, 1893~1924년) 목포화교의 경제·사회적 활동에 관한 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21(2), 2018, 95~115쪽
- 33) 이정섭, 「일제강점기 도시화와 인구이동 : 1930년 부(府)와 지정면(指定面) 지역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제52권 제1호, 2017, 118쪽 표11
- 34) 김정섭 옮김, 앞의 글(1991), 45~46쪽
- 35) 「목포경상도우회총회」, 『매일신보』, 1921.5.27. 회장 이근창, 회원 수백 명, 유달산 야유회 기념 암각 「목포경상도우회총회」, 『매일신보』, 1921.9.22. 회장 이근창, 출석인 154명
- 36) 경상도우회를 이끈 이근창은 무안군 이로면장과 무안금융조합장, 전남도평의회원을 지냈고, 진주 출신의 정병조는 목포물산문목 대표, 목포부회의원, 국민대학교 이사장 등을 지냈다.
- 37) 이정섭, 「일제강점기 도시화와 인구이동 : 1930년 부(府)와 지정면(指定面) 지역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제52권 제1호, 2017, 118쪽

(府) 중에서 유입인 비율이 가장 높은 개항장이었는데,<sup>38)</sup> 경상남도과 전라남도 출신자가 인구의 8.81%를 차지해 남한에서 이주한 유입인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였다.<sup>39)</sup> 청진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요인은 쌀과 해산물 등을 만주국에 수출하는 무역이었다. 1939년 청진의 직업별 인구 구성은 상업·교통업 종사 비율이 41.4%로,<sup>40)</sup> 여러 가지 면에서 목포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빠른 성장 속도, 높은 유입인구 비율, 교역 물품의 종류, 직업별 인구 구성 등이다.<sup>41)</sup> 상업 도시 목포의 주요 교역품은 쌀과 면화, 누에고치 등 농산물과 김(海衣, 海苔), 고등어, 도미 등 수산물이었다.<sup>43)</sup> 1929년 12월 현재 목포 인구의 54.2%가 상업·교통업에 종사하고 있어, 오히려 청진보다 상업 도시 성격이 두드러진다.



【그림 II -4】 목포부 직업별 분포도(1929.12)<sup>42)</sup>

## 2) 근대도시 목포의 이중성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는 근대 일본의 교육자이자 계몽사상가이다. 후쿠

38) 송규진, 「일제강점기 '식민도시' 청진 발전의 실상」, 『사학연구』 110, 한국사학회, 2013, 349~363쪽  
 청진은 한국 정부의 일본인 재정고문 目賀田種太郎가 무역항으로서 발전 가능성을 제안함에 따라 1908년 4월 1일 개항했다. 1914년 당시 1만 명이 넘는 면(面)도 많았기에 인구수 5,539명인 청진은 12부(府) 중 규모가 가장 작았다. 1943년에는 1910년 이후 전국의 평균 인구가 3.5배 증가하는 동안 56배가 증가하여, 인구수 221,105명의 제4대 도시가 되었다.

39) 이정섭, 앞의 글, 118쪽 분석  
 1930년 현재 전국 14개 부에서 유입인구 비율 상위 지역은 청진(82%), 신의주(78.5%), 군산(74.0%), 목포(74.0%), 진남포(72.1%) 순이고, 경상남도과 전라남도 출신자가 경상도와 전라도를 벗어나 높은 비율로 정착한 도시는 청진(8.66%), 인천(3.35%), 원산(2.49%), 서울(2.42%) 순이었다.

40) 송규진, 앞의 글, 361쪽

41) 유입인구의 비율은 각주 35번 참조.

아래는 김정섭 율김(2011)과 송규진(2013)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목포와 청진의 직업별 인구 비율

구분	목포(1929년)	청진(1939년)
상업·교통업	54.2%	41.4%
공업	14.4%	21.0%
기타유업	11.5%	22.3%
공무 및 자유업	10.1%	7.3%
무직 및 미상	6.3%	1.2%
농·어업/농업·목축업	3.5%	2.4%
수산업		4.4%

42) 목포부, 「직업별호구표」(1929년 12월 말), 『목포부사』, 1930, 826~827쪽 재구성

43) 김정섭 율김, 앞의 글(2011), 472쪽



자와의 세계관은 동양과 서양, 문명과 야만, 제국과 식민지의 이분법에 기초한 것이며, 그가 주장한 ‘탈아론(脫亞論)’은 근대일본이 가야 할 문명사회를 서구에서 찾아야 한다는 일본의 대아시아 정책의 핵심 이데올로기다.<sup>44)</sup> 아시아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하는 탈아론을 배경으로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불만을 해외로 전가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해외 이주를 적극 권장했다.<sup>45)</sup> 일본 정부의 해외 이민 권장 정책은 항로 개설, 경제지원, 여권 면제 등 재정적·제도적 지원 외에도 적극적인 선전 활동이 병행되었다.<sup>46)</sup> 조선으로 이주한 일본인들은 식민지 개척의 일선에서 움직이며 ‘제국의 브로커’가 되었고,<sup>47)</sup> 이익 추구를 위해서는 평소에는 멸시하던 조선인과 협력관계를 맺기도 하고<sup>48)</sup> 일본 정부와 갈등 관계를 형성하기도 했다.<sup>49)</sup>

목포개항이 본격화되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주거환경을 위한 도시개발이었다. 목포 거류지 대부분은 바위, 늪, 갯벌로 구성되어 있었고, 평지인 갯벌을 택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벽공사(海壁工事)와 도로공사를 선행해야 했다. 이 공사는 증남포목포각국조계장정(甌南浦木浦各國租界章程)에 따라 조선 정부의 관할이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sup>50)</sup>는 재정 형편이나 공사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극적

44) 윤상인, 「지리담론을 통해 본 근대일본인의 심상지리와 아시아 인식 : 후쿠자와 유키치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제23집,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137~146쪽  
후쿠자와의 ‘탈아론’은 일본인 스스로가 아시아의 일원이면서 아시아를 타자화했다. 후쿠자와에 대한 평가는 ‘전형적인 시민주의자’(마루야마 마사오, 丸山眞男)라는 전통적 평가와 ‘아시아의 침략자’(야스카와 주노스케, 安川壽之輔)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맞서고 있다.

45) 徳間一芽, 앞의 글(2010), 8~9쪽  
일본 정부는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열강과의 불평등한 관계를 벗어나고자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는 정책으로 지조개정(地租改定)과 판적봉환(版籍奉還)을 시행했다. 그러나 전자는 농민들이 저항했고 후자는 기존 권력층에서 반발이 일어나자 불만을 해외로 돌리려 정한론(征韓論)이 제기되었다.

46) 徳間一芽, 앞의 글(2010), 11~12쪽  
『最新朝鮮移住案内』(1904)라는 홍보물에는 백인들이 사는 곳에서는 일본인이 노동자로 일할 수밖에 없지만, 조선인은 일본인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기에 관리들조차 길을 비킨다며, 조선으로 이주하면 조선인을 부리면서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고 유도했다.

47) 최우길, 앞의 글, 476~477 재인용  
우치다 준(한승동 옮김), 『제국의 브로커들-일제강점기의 일본 정착민 식민주의 1876~1945』, 길, 2020  
우치다 준은 “일본제국이 조선을 식민화하는데 있어, 그 주역인 정착민 공동체의 일본인(거류민)들을 ‘제국의 브로커’라 이름지었다.” 이들은 “개인적 이익과 필요에 따라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움직였고 국가이익은 부차적인 것이었지만, 그들의 일상적 활동과 일본제국의 야망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었다.”

48) 고나, 「지주 네트워크와 개항장 목포의 로컬리티」, 『로컬리티 인문학』 1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5, 215쪽 <표6> 참조  
일본 거류민들은 목포농담회와 목포부협의회를 통해 조선인 지주들과 교류했다.

49) 徳間一芽, 앞의 글(2010), 20~26쪽  
일본거류민회는 주민 자치 조직으로 치안 유지와 학교 운영 등을 담당했다. 도시계획과 인프라 정비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일본 정부와 밀접한 관계였지만, 자치권이 침해당하자 반발하여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도 했다.

50)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 성립 이후의 행위 주체로서 정부는 이전의 조선 정부에서 성립한 계약 등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로 통일함. 이후에 언급되는 ‘조선인’은 국권 침탈 이후라도 당대의

으로 주도할 형편이 안 되었기에 목포 각국거류지회(各國居留地會)와 협의하여 해벽 공사에 대한 사무 권한을 각국거류지회(各國居留地會)에 위임하였다. 목포 각국 거류지회는 무안감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는데, 결국 한국 정부에서 일본 영사에게 해벽 공사에 대한 용역을 맡기는 형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sup>5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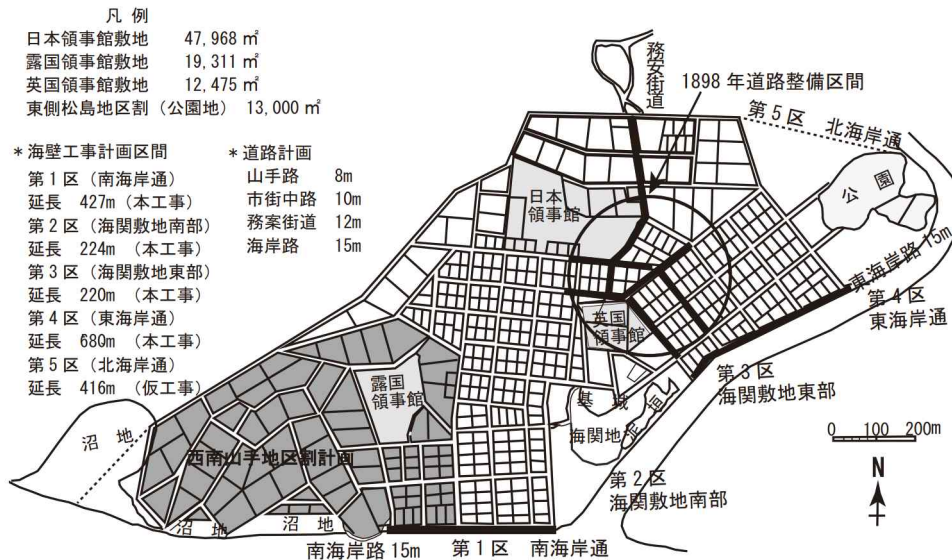


圖4 1899年第1次地區割計畫及海壁·道路整備計畫  
(注19) 付圖を基に作成)

【그림 II -5】 1899년 제1차 지구분할 계획 및 해벽·도로 정비계획<sup>52)</sup>

한국 정부에서 9만 5천 원을 부담하여 1899년 6월에 시작된 해벽공사는 1901년에 완성되었으나, 몇 차례의 붕괴와 자금난을 겪으며 각국거류지회의 예산이 추가 투입되었고 1909년에서야 안정화되었다. 조선 정부의 파견 기사 스테든(J.C Staden)<sup>53)</sup>이 설계했던 각국거류지 개발계획은 해벽의 위치 변경, 해수 침범 등으로 난관을 겪었고, 이에 따라 공사를 담당했던 각국거류지회는 무안감리서, 목포해관(木浦海關)과 협의하여 도로부지의 위치 이동을 포함한 각국거류지 전체의 설계를 수정했다.<sup>54)</sup> 거류지 내의 도로는 기존 도로나 자연 지형을 활용해서 1898년 목포진

일상적인 표현대로 '조선인'으로 통일함.

51) 최성환, 앞의 글(2017), 359쪽

52) 延圭憲, 伊藤裕久, 「韓·木浦各國居留地における地區割計畫の変遷と競売過程に関する研究」,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 第80卷 第713号, 日本建築学会, 2015, 1699쪽

53) 스테든(J.C Staden, ?~?)은 1897년 조선해관에 채용된 네덜란드인이다. 인천해관 서기직(Clerk)으로 채용되었으나, 실제로는 기사(Engineer) 역할을 담당하였다. 1897년부터 목포를 비롯한 군산, 마산, 성진 등 개항장의 측량과 구획정리를 위해 파견되었다.

54) 윤희철, 「일제강점기 목포 도시계획의 내용과 특징」,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2), 한국지역개발학

과 복산정(福山町) 사이의 길을 완성했으며, 1906년 착공된 내륙도로는 1909년 목포·무안 구간이 완성되었다.<sup>55)</sup>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식수 문제가 대두되자 1908년부터 1914년까지 급수 인구 1만 7천 명을 기준으로 한 제3 수원지까지 개발되었다.<sup>56)</sup> 1913년 목포역 개통,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 등은 목포의 상권이 확장되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였다. 목포의 성장 속도는 인구 증가율로 알 수 있는데, 1916년 이후 11년간 일본 여러 도시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3.2%일 때 목포는 6.5%이고, 특히 교외 인접 지역에서는 12.2%라는 이례적인 팽창률을 보이며 빠르게 성장했다.<sup>57)</sup>

상업 도시 목포는 일본제국의 여느 식민도시와 마찬가지로 이주한 일본인들이 상권을 주도했고 한편으로는 차별적인 도시의 환경을 구축해 나갔다. 거류지 중심의 도시개발에 따라 매립된 갯벌은 넓은 도로와 평지로 변했고, 신문명 전기는 즐비한 일본식 건물과 거리의 가로등을 밝히면서 근대도시 목포의 경관을 변화시켰다. 초기에 들어선 시설은 영사관, 해관(海關), 공원, 창고, 사교클럽, 공동묘지 등 서양의 식민지 시설과 비슷했지만, 일본인의 증가에 따라 신사, 유곽, 사찰 등 일본적인 요소가 두드러지면서 일본의 역사 도시와 다를 바 없는 형태를 추구했다.<sup>58)</sup>

작은 어촌이었던 목포는 개항 후 30년 만에 근대 문명이 넘치고 수출실적은 전라남도 전체 항구의 2.4배에 달하는 호남 제일의 무역항으로 성장했다.<sup>59)</sup> 그러나 근대도시 목포의 빛은 일본인과 소수의 조선인 자본가에게 돌아갔고, 조선인 대부분은 어두운 그림자 속에 머물러야 했다. 거류지에 살 수 없었던 조선인들은 거류지 바깥의 산비탈에 있는 공동묘지를 주거지로 삼았는데, 이곳을 ‘일본인 마을’과 대비되는 ‘조선인 마을’ 또는 ‘본국조계(本國租界)’라 불렀다.<sup>60)</sup> 일본인 마을은 근대

---

회, 2013. 8~9쪽

55) 德間一芽, 앞의 글(2010), 25~26쪽

56) 윤희철, 앞의 글, 7쪽

57) 김정섭 옮김, 앞의 글(2011), 185쪽

58) 轟博志, 「韓国の旧開港場に投影された「日本」-当時の都市計画と現代の観光計画の間で-」, 『立命館大学人文科学研究所紀要』121, 立命館大学人文科学研究, 2019, 169~180쪽

59) 김정섭 옮김, 앞의 글(2011), 477쪽

목포항의 수출액 총계는 21,132,772원이며, 전라남도 전체 항구의 수출액은 9,281,009원으로 목포항 수출액의 43.9%에 불과했다.

「湖南の一大貿易港木浦府と務安郡」, 『조선신문』, 1934년 12월 23일, 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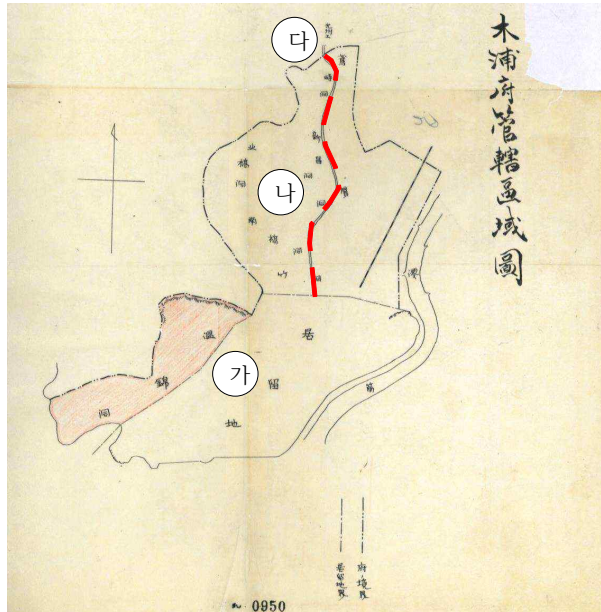
「大木浦躍進全貌」, 『동아일보』, 1937년 11월 17일, 7면

60) 고석규, 「개항장 목포의 초기 도시화 과정」, 『목포개항 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168~174쪽

박찬승, 「무안감리서와 개화자강운동」, 『목포개항 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152쪽

“죽동, 만복동, 남교동 등 유달산 자락에 한국 상인들과 노동자들이 거주했는데 각국조계지와 인접한 이곳은 개항 이전에는 사람이 전혀 살지 않던 곳이며 수백 개의 분묘만이 자리 잡고 있던 곳이었다.”

식 기술을 적용한 시가지였지만 조선인 마을은 자연 형성됨으로 그 형태가 불규칙하고 사회 기반 시설도 거의 없었다.<sup>61)</sup> 조선인 마을은 1943년 3월에서야 조선시가지계획령<sup>62)</sup>의 가로망 계획에 따라 일부 기존 도로의 확장과 신설도로가 건설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조선인 마을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대규모 토지를 점유한 일본인과 자본력 있는 소수 조선인의 소유권을 국가나 목포부(木浦府)에서 매입한 결과였다.<sup>64)</sup>



【그림 II -6】

목포부관할구역도(木浦府管轄區域圖, 1914)<sup>63)</sup>  
가. 거류지 나. 조선인 마을 다. 도로

도시개발의 이중성과 임금 등에서 차별받은 조선인의 저항은 부두 노동자 파업과 의병운동, 소작쟁의, 청년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었다. 1898년 2월에 임금 인하 반대 투쟁으로 시작한 목포항의 부두 노동운동은 우리나라 최초의 부두 노동운동이었다. 1903년의 부두 노동운동은 임금 문제와 봉건 모순, 민족 모순을 해결하고자 했으나 무안감리서가 습격당하고 일본 군함이 입항하여 무력시위를 벌이는 등 사태가 악화하면서 이듬해 불리한 조건 속에서 협상이 마무리됐다.<sup>65)</sup> 목포지역의 의병운동은 일본인들의 내륙 통상과 목포항으로 실려 가는 미곡 수집을 방해하며 남한대토벌작전(南韓大討伐作戰)<sup>66)</sup> 이전까지 크게 활약했다. 또한 목포에 거주하는 신안·무안의 대지주 땅에서

61) 박종철·강병기, 「木浦 市街地形形成過程과 都市計劃의 影響」,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1, 한국지역개발학회, 1989, 138쪽.

62) 윤희철, 앞의 글(2013). 19쪽

조선총독부가 1934년에 제정한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1935년부터 전국 17개 도시의 시가지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가 실시됐고, 「목포시가지계획」은 1937년 3월 23일 총독부 고시 제187호로 공포된다. 이 계획은 광복 후인 1960년대까지도 거의 변경되지 않았다고 한다.

63) 목포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 정비계획, 2020, 156쪽 재인용

『木浦府管轄區域圖』(1914), 국가기록원 소장

64) 山元貴継, 「日本統治時代における朝鮮半島-木浦府周辺の空間的変容-地籍資料の分析を中心に-」, 『人文地理』 55-4, 人文地理学会, 2003, 4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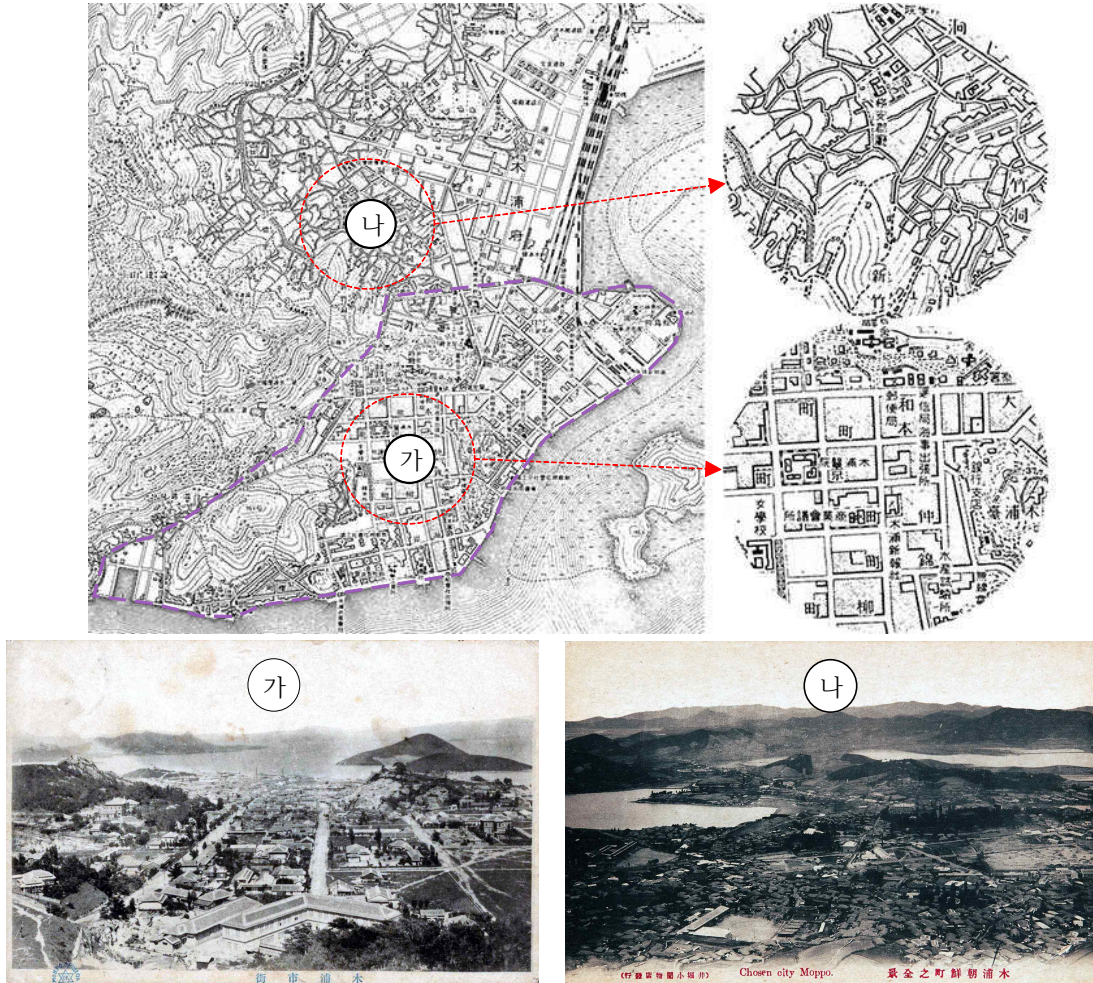
이미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도시개발은 토지수용이 필수이고, 소유주의 조선인 또는 일본인이라는 민족적 구분과는 무관하게 개발 예정 토지에 소유주가 미거주 시 개발이 수월했다고 한다.

65) 고석규, 「목포의 부두 노동자와 노동운동」, 『목포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160~166쪽

66) 호남지역은 농학농민혁명의 본거지로서 반일 의식이 강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의 토지침탈, 경제적



활발하게 일어났던 소작쟁의와 목포청년회관을 중심으로 펼쳐진 민족운동 등은 근대도시 목포의 봉건 잔재와 제국주의의 상처를 집약하고 있었다.



【그림 II -7】 목포 일본인 마을과 조선인 마을<sup>67)</sup>  
가. 일본인 마을 나. 조선인 마을

현실의 차별에 저항하며 싸운 힘없고 소외된 농민이나 노동자와는 달리 현실과 타협하면서 이윤을 추구한 대지주도 있었다. 목포로 이주한 조선인 지주들은 개항장 유통경제의 발전에 편승하거나 토지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는 의병 활동

수탈이 극심하여 의병이 많았다. 1909년 통계에 의하면 전체 의병에서 호남지역 의병이 절반을 넘었는데, 호남대토벌작전으로 사망자는 420명, 체포 또는 자수자가 1,687명이며 희생된 의병장만도 103명에 이르렀다. 이 작전으로 국내 의병 세력은 큰 타격을 입고 만주, 러시아 등 국외로 이동해 독립군으로 전환하였다.

「호남대토벌작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6314>

67) 지도 : 『목포』,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축척 1/10000, 1932

사진엽서 출처 : 가.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심한 지역에서는 일본 헌병대의 보호를 위해서 이주해오기도 했다.<sup>68)</sup> 이들은 목포농담회(木浦農談會)와 목포부협의회(木浦府協議會)를 중심으로 일본인 유지들과 공통의 관심사를 교류하며 부를 축적했다.<sup>69)</sup>

계획도시로서 바다를 매워 신도시를 건설한 목포는 신도시에 해당하는 거류지 대부분을 일본인이 독점적으로 점유했기에, 일본의 역사 도시와 다를 바 없는 일본풍의 경관이 뚜렷했다. 특히 일본의 종교시설은 무안통(務安通) 가로변을 따라 늘어선 일본식 경관의 차이를 지배했다.<sup>70)</sup> 무안통은 일본인 마을과 조선인 마을을 잇고, 내륙으로 향하는 대로이면서 목포역에서 시가지로 진입하는 길목에 위치해 목포의 첫인상을 결정했다. 목포는 일본인 마을과 조선인 마을로 명확하게 구분된 식민도시<sup>71)</sup>의 차별성과 이중성을 배태한 채 근대도시로 접어들었다.

## 2. 목포 역사문화자원 조사

### 1) 조사범위

목포지역의 역사문화자원<sup>72)</sup>을 조사하는 일은 2020년 8월부터 14개월간 진행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문화자산 아카이브 구축 용역’<sup>73)</sup>의 일환으로 시작되

68) 고나은, 「지주 네트워크와 개항장 목포의 로컬리티」, 『로컬리티 인문학』 1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5, 204쪽 재인용

박천우, 『한말 일제하의 지주제 연구 -암태도 문씨가의 지주로의 성장과 그 변동-』,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33쪽.

69) 고나은, 앞의 글, 215쪽

70) 고석규, 「근대도시 목포의 대중문화를 통해 본 식민지 근대성」, 『지방사와 지방문화』 9(1), 역사문화학회, 2015, 96쪽

轟博志, 앞의 글(2019), 179쪽

轟博志는 목포 무안통에 사찰이 집중된 것은 다른 개항장과 차별성이 없다고 보았다. 무안통과 인접하여 공동묘지가 조성되었는데 인천 또한 종교시설과 인접한 지역에 공동묘지가 있고, 마산도 공동묘지 입구와 가까운 내륙으로 향하는 길목인 통마울과 궁마울에 종교시설이 집중되었다고 한다.

71) 송규진, 「일제강점기 ‘식민도시’ 청진 발전의 실상」, 『사학연구』 110, 한국사학회, 2013, 331쪽 재인용

히사야 히로시(김제정 옮김), 『일본제국주의-식민지도시를 건설하다』, 모티브북, 2005, 17~19쪽.

김백영, 『지배와 공간: 식민지 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문학과지성사, 2009

‘식민지 도시’는 식민지 하의 도시로 일본제국 내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와 함께 완전히 새롭게 형성된 도시, 재래사회의 전통적 도시 위에 겹쳐 지면서 형성된 도시, 기존 대도시의 근교에 일본이 신시가를 건설한 도시로 분류할 수 있다.(히사야 히로시) 반면 ‘식민도시’는 식민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도시로 식민권력의 정책 혹은 식민지 이주민들의 활동에 의해 건설된 새로운 도시이기 때문에 식민지 도시 개념 가운데 일부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김백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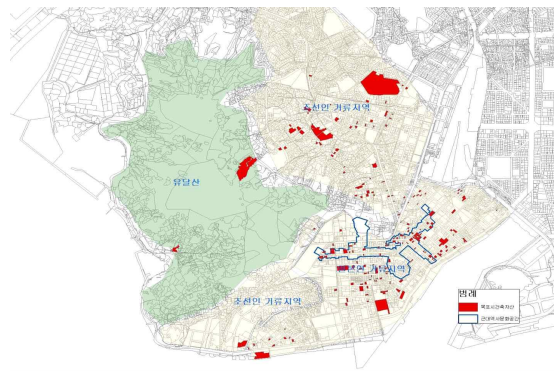
72)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과제 명칭 등을 표기할 때를 제외하고 ‘자산’을 ‘자원’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재화(財貨)의 성격이 강한 ‘자산’이라는 개념보다 인간 생활 및 경제 생산에 이용되는 원료로서 포괄적 함의를 지닌 ‘자원’을 사용한다.

73)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문화자산 아카이브 구축 용역’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4

었다. 연구범위는 공간, 시간, 내용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과제의 명칭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배경은 일본인 마을의 일부 공간인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sup>74)</sup>이며, 내용적 범위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근대문화자원’을 대상으로 하고, 시간적 범위는 근대문화자원과 관련되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다. 하지만 실제 연구의 범위는 공간과 시간이 모두 확장되었고, 공간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부터 조선인 마을까지를 포함한 원도심<sup>75)</sup> 전체를 중심권역으로 하고, 시간은 목포를 배경으로 한 인물과 사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목포진이 설치된 조선 초기부터 현재까지로 하였다.



【그림 II -8】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현황도<sup>76)</sup>



【그림 II -9】 목포시 원도심 일대

이 연구과제의 주요 내용은 네 가지로 근대문화자원의 자료 조사·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목록 구축, 문화재 등록을 위한 보고서 작성, 콘텐츠 활용방안 마련, 아카이브 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이었다.<sup>77)</sup> 첫째, 근대문화자원의 자료 조사·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목록 구축은 근대 개항 도시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분야의 문화유산 조사와 학술조사를 바탕으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범위조정을 위한

개월간 진행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주)피씨엔, (주)디딤건축사가 공동 수행한 이 프로젝트의 책임 연구원은 김현(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이며, 필자는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여 프로젝트 전반의 관리 및 근대문화자원의 자료 조사·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목록 구축과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다.

74) 국가등록문화재 제718호(2018년 8월 6일 지정). 2023년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재화적 성격을 가리키는 ‘문화재’ 명칭과 ‘번호’가 폐지되었다.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유산의 체계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문화유산의 구분은 지정유산, 등록유산, 목록유산으로 나뉘었다.

75) 1980년대까지는 도시의 중심 상권이었지만 현재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지역이다. 일제강점기에는 목포부의 중심권역이었고 당시 건립된 다수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

76) 「관보」 제19312호, 2018년 8월 16일 자

77) 김현, 김광우,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문화자산 아카이브 구축 용역 보고서』, 2021, 목포시, 1~3쪽

기초자료 정리,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맨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는 문화재 등록을 위한 보고서 작성은 원도심 일대의 근대 건축자원을 발굴하여 문화재 등록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셋째는 콘텐츠 활용방안으로 기존의 지정 및 등록 문화유산의 3D 콘텐츠 제작 및 활용방안 제시, 마지막으로 최종 생산된 결과물을 관리하기 위한 아카이브 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이었다. 목포시와의 기술 협상 결과 최종 결정된 내용과 수량은 다음과 같다.

【표Ⅱ-2】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문화자산 아카이브 구축 용역 과업 목표

과업 구분	기술 협상	연구팀 제안
근대문화자원 기초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건설, 건축, 민속, 생활사 등 도시발전의 변천을 보여주는 분야</li> <li>- 학술조사를 토대로 결과물 전문가 감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맨틱 데이터 3,000건</li> <li>- 전자 연표 데이터 1,000건</li> </ul>
실측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용역과 중복되지 않는 건축물</li> <li>- 120개소 내외 도면 작성</li> <li>- 문화재 등록 보고서(20개 대상)</li> </ul>	
콘텐츠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건축물의 3D 모델링</li> <li>- 74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리뷰, 항공뷰, 실내뷰 등 고해상도 360° 파노라마 영상 300편</li> </ul>
아카이브 관리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식</li> </ul>	

목포시에서 요청한 조사범위는 원도심 일대의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건축자원을 대상으로 하고, 개항 이후부터 현재까지 목포의 민속·생활사·도시발전상 등 문화에 대한 제반 사항을 포함했다. 공간과 시간, 조사 대상의 구체화가 필요했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으로는 건축자원과 역사문화자원으로 구분하였다. 건축자원은 원도심 일대의 현존하는 건축 연한 50년 이상 건축물을 전수조사하여 120개의 도면 작성을 목표로 했다. 역사문화자원은 5,000건의 데이터 생성을 목표로 인물, 단체, 사건, 장소, 건축물로 세분화했다. 역사문화자원은 목포를 대표하는 역사적·문화적 함의를 담고 있어야 하며, 현존하지 않더라도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건축물, 인물, 단체, 사건, 장소를 모두 포함하였다.

【표Ⅱ-3】 역사문화자원의 조사 대상

구분		내용
건축물	문화재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주요 건축물	현존하는 건축 연한 50년 이상의 건축물
역사문화자원	건축물	사라진 목포의 주요 건축물 포함
	인물	근대 시기 목포를 배경으로 활동한 역사적인 인물
	단체	집단적 행위 주체로서의 단체, 운영 주체로서의 기관
	사건	목포를 배경으로 하는 사건, 기념행사
	장소	유적지, 유물 소장처, 행정지명, 자연 지명, 고지명

## 2) 조사 대상

### 가. 건축자원

개항 이후 목포의 도시발달 과정에서 건축된 주요 건축물로서 역사적 가치와 보존의 가치를 판단하여 조사하였다. 현존 건물 조사는 원도심 일대 건축 연한 50년 이상의 120개에 대한 개요와 현황, 도면, 조사 의견을 작성하여 향후 정책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역사적 가치가 있지만 멸실된 건물은 그 건물과 관련된 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 나. 인물

출신지와 국적을 가리지 않고 개항 이후 목포를 배경으로 활동한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목포지역에 크게 영향을 미친 인물로 지역 사회에 끼친 긍정 또는 부정적 가치평가는 하지 않고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국제적인 위상의 제고를 위하여 목포에서 활동한 외국인에 대해 주목하였다. 문화예술계 인물은 생존자를 포함하였으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치·행정 분야의 생존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다. 단체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단체를 주요 대상으로 했으며, 광복 이후는 일제강점기의 단체와 연관성이 높거나 목포를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한정하였다. 본점의 위치는 목포가 아니더라도 목포의 주요 인물이 관여하였거나 목포에서 중요한 활동을 한 단체도 포함했다.<sup>78)</sup>

## 라. 사건

건축자원과 단체는 설립이나 활동 시기를 일제강점기에 비중을 두었으나 인물과 사건은 목포의 현재성을 중시하여 광복 이후까지 주목하였다. 특히 목포지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건은 광복 이후에 발생하였더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sup>79)</sup>

## 3) 조사 방법

### 가. 문헌조사

자료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목록 구축을 위한 기초 조사는 역사문화자원의 성격에 따라 건축자원<sup>80)</sup>과 역사자원<sup>81)</sup>으로 나누어 두 가지 분야로 진행했다. 조사 방법은 도서·문서·신문·서찰·연구자료를 포함한 문헌조사와 사진·영상 등의 미디어 조사, 그리고 현지 실측 조사가 병행되었다.

문헌조사는 『목포지』(1914)와 『목포부사』(1930)를 기본으로 『목포시사』(1997, 2017)를 비교하였다. 또한 일제강점기의 목포와 관련한 다양한 도서와 사진집, 그리고 광복 이후의 목포 관련 도서와 논문, 연구보고서를 조사하였다.<sup>82)</sup> 건축자원은 『목포 근대건축자산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개발』(2018), 『목포 근대역사 문화공간 종합 정비계획』(2020)의 조사 결과를 참조하였다.

---

78) 호남은행의 본점 위치는 광주이지만 김상섭, 김성규, 차남진, 문재철 등 주요 참여자는 목포의 자본가들이다. 덕전양행과 대판상선주식회사는 본점이 오사카이지만 목포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했다.

79) 목포북항 개발(1935~2000), 8.15해방(1945), 목포형무소 탈옥 사건(1949), 삼학도 복원사업(2000), 전남도청 남악 이전(2005), 무안반도 통합 결렬(1994~2009), 세월호 목포항 거치(2017) 등

80) 현존하는 건조물로서 건축 연한 50년 이상의 건조물

81) 현존건조물을 제외한 멸실 건조물, 인물, 단체, 사건, 장소 등의 역사문화자원

82) 개별 사진 및 도면, 문서, 논문 목록은 참고문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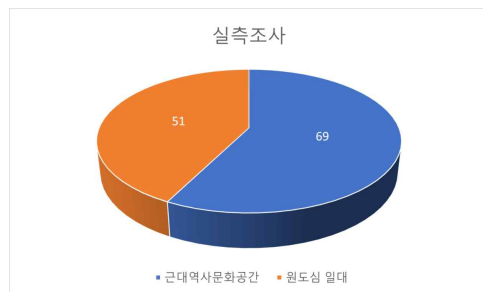
【표 II -4】 기초 조사 참고도서

제목	편·저자	발행처	발행일	비고
務安報牒		무안감리서	1897~1906	도서
木浦案内		목포신보사	1902	도서
在韓人士名鑑	中田孝之介	목포신보사	1905	도서
木浦支場報告 第三號		조선총독부	1911	도서
木浦誌	편찬위원회	목포부	1914	도서
朝鮮地誌資料		조선총독부	1918	도서
木浦		목포상업회의소	1921	도서
木浦案内		목포상업회의소	1921	도서
朝鮮に於ける支那人		조선총독부	1924	도서
木浦案内		목포상업회의소	1925	도서
朝鮮の港湾		조선총독부	1925	도서
木浦大觀		목포부	1926	도서
木浦府史		목포부	1930	도서
朝鮮の都邑		조선총독부	1930	도서
朝鮮港湾要覽		조선총독부	1931	도서
湖南評論		호남평론사	1935~1937	도서
朝鮮興業株式会社 三十周年記念誌		조선흥업(주)	1936	도서
木浦史鑑	양세훈	신조출판사	1955	도서
木浦市史 (人文編)		목포시	1990	도서
木浦市史 (社會·産業編)		목포시	1990	도서
광주 1백년	박선홍	광주문화재단	1994	도서
木浦市の 文化遺蹟	국립목포대 학교박물관	목포시	1995	도서
木浦市史 (1980~1994)		목포시	1997	도서
木浦開港百年史	편찬위원회	목포백년회	1997	도서
양동제일교회 100년사 (1897~1997)	김수진	양동제일교회	1997	도서
항구도시 목포 - 유달동, 만호동	이성곤, 박진영	전라남도·국립민속 박물관	2011	도서
목포의 역사와 이야기 100선	이준곤, 조상현, 최성환	목포시	2014	도서
木浦市史	편찬위원회	목포시	2017	도서
예향 2017 Vol. 3		목포문화재단	2017	도서
영수증		柴田旅館	1920	영수증
大日本職業別明細圖 木浦府		동경교통사	1929	지도

제목	편·저자	발행처	발행일	비고
木浦名所繪葉書帖		목포충영상점	1920	엽서
本殿再建入佛御供養記念繪はがき		대곡파동본원사목포별원	1933	엽서
安聖絃作曲集 1	안성현	향도출판사	1948	악보집
大日本帝国朝鮮写真帖		小川一真出版部	1910	사진첩
全南寫眞誌		목포신보사	1917	사진첩
朝鮮之風光		남만주철도(주)	1922	사진집
全羅南道物産共進會		전라남도	1926	사진집
木浦寫眞帖		목포신보사	1932	사진집
木浦, 우리들의 故郷 (1958~1996)	박종길	삼화문화사	1997	사진집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 기록화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4	보고서
목포 구 청년회관 기록화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4	보고서
목포 정명여자중학교 구 선교사 사택 기록화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4	보고서
목포 중앙교회 기록화 조사보고서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재청	2008	보고서
구 목포사범학교 분관 기록화 조사보고서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재청	2009	보고서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모델 개발 연구	박소현	문화재청	2019	보고서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조사·계획 체계 구축 방안	임유경, 심경미, 권영란, 방보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20	보고서
목포 근대건축자산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개발		목포시	2018	보고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 정비계획		목포시	2020	보고서

## 나. 실측 조사

실측 조사는 연구과제의 범위인 현존 건축물 120개 조사를 목표로 진행하였다. 목포시의 「2020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 정비계획」에서 검토한 130개의 건축물을 바탕으로 현장 조사 중 단위 건물 유산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추가하여 총 145개의 건축물을 조사하였다. 등록문화재를 포함하



【그림 II-10】 실측 조사 건축물 분포

여 이미 실측 조사가 완료된 47건을 제외한 98개의 건축물을 실측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타 신규 조사 대상으로 22개의 단위 건물을 추가하여 총 120건의 실측 조사를 완료하였다. 공간 분포는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69건과 원도심 일대 51건이다. 조사 내용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보전 상태 및 주요 특징, 주소, 현장 사진 촬영,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인터뷰 등으로 진행되었다.<sup>83)</sup>

#### 4) 조사 결과

##### 가. 역사자원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초 조사 결과 건축자원을 제외한 역사자원은 시맨틱 데이터 생산 목표 수량 3,000건 대비 730% 초과 달성한 22,159건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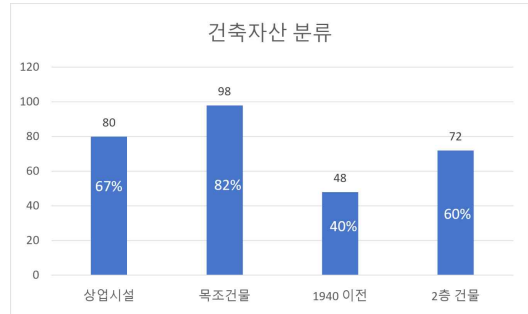
【표 II-5】 기초 조사 결과

구분	내용	수량
건축물	현존 건축물 중심, 주요 멸실 건축물 포함	216
문화재	목포지역 문화재	37
인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 주요 인물	3,655
단체	공기관, 상업단체, 사회단체	3,406
사건	목포진 설치 이후 현재까지 주요 사건	712
개념	역사적 사건, 제도 등의 배경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개념어	122
기록물	사료, 문서, 고신문, 잡지 등의 기사	6,765
연구자료	서적 및 연구논문	94
멀티미디어	3D 모델, 사진, 영상 등	4,985
도면	기존 목포시 사업 결과 생성된 건축자산 도면	251
영상자료	홍보자료, 인터뷰자료, 영화자료	204
장소	목포 관련 행정지명 또는 공간	51
시간	사건의 발생일 등	1,959
합계		22,159

83) 김현, 김광우, 앞의 글, 31~33쪽

나. 건축자원

실측 조사 결과 총 120개의 건축자원은<sup>84)</sup> 건축물의 용도, 구조, 건립연대, 층수로 구분할 수 있다. 용도별로 가장 높은 비율은 상업시설이 67%(80건)였고, 구조별로는 목조가 82%(98건), 건립연대는 1940년 이전의 건축물이 40%(48건), 층수는 2층 건물이 60%(72건)를 차지했다. 일제강점기 목포의 상업시설 건축물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결과였다.



<그림 II -11 건축자원의 분류>

【표 II -6】 건축자원의 분류

구분		수량	비율
용도	주거시설	28	23%
	상업시설	80	67%
	산업시설	11	9%
	종교시설	1	1%
구조	목조	98	82%
	벽돌조	5	4%
	석조	14	11%
	블럭조	1	1%
	철골조	1	1%
	철근콘트리트조	1	1%
건립연대	1980년대	4	3%
	1970년대	2	2%
	1960년대	16	13%
	1950년대	42	35%
	1940년대	6	5%
	1940년대 이전	48	40%
	미상	2	2%
층수	1층	47	39%
	2층	72	60%
	3층	1	1%

84) 【부록 II -2 목포 근대건축자원 조사 목록표】

### 3. 목포 역사문화자원 수집

#### 1) 자원의 수집

##### 가. 수집 절차

연구자원의 수집을 위해서는 망라적인 목포 역사문화자원의 기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목포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자원을 정하고, 선정된 자원에 대한 탐구와 관련 자원의 추가 수집을 진행해야 했다. 집필자의 의도가 반영된 문헌조사 방법의 결과<sup>85)</sup>만으로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어 기초 조사에서 목록 선정, 최종 수집까지 지역원로와 전문가의 참여·토론과정을 통해 합의된 자원을 선정하고자 했다. 자원의 선정 과정에서 의도적인 회피나 선양을 위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긍정적 또는 부정적이라도 목포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역사적인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연구자원의 수집 절차는 조사 방향 설정 및 문헌조사를 기본으로 한 기초 조사와 검토위원의 검토 회의, 그리고 지역원로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위원의 최종 선정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표 II -7】 역사문화자원의 선정 절차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목포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기초 조사 결과 총 21,908건

85)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목포지』(1914), 『목포부사』(1930)는 조선인의 시각이 배제되어 있으며, 최근에 펴낸 『목포시사』(2017)에서는 근대도시 목포를 주도한 일본인에 관한 서술이 배제되었다.



의 역사 자료의 목록이 확보되었다. 연구자원을 선정하는 회의는 총 21,908건의 역사 자원 중에서 지식 편찬자(Curator)의 부가 설명이 필요한 핵심 항목의 범위와 수량을 정하는 것이 목표였다. 핵심 항목은 연구진의 자체 검토 회의와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sup>86)</sup>을 활용한 지역 원로와 전문가의 의견 교환을 통하여 1차 시안을 선정하고, 취합된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진이 1차 선정하였다. 1차 선정된 핵심 항목의 수량은 인물 150명, 단체 150개, 사건 100건을 합산하여 총 400개의 항목을 정했다.

1차 선정 후 전문가 검토 의견으로는 목표 수량에 제한되지 않는 열린 구조와 최근의 연구 성과 반영, 그리고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분야인 사회복지 관련 인물들의 추가 요청이 있었다. 공간은 향후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도심에 한정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의견과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닌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근대 문화자원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콘텐츠의 내용을 중학생 수준으로 쉽게 구성해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요청하는 의견도 있었다.<sup>87)</sup> 검토 의견은 대부분 반영하였다.

【표 II -8】 역사문화자원의 선정 회의

구분	일시	내용
사전회의	2020.8.26	연구 방향 및 조사 대상 자료 선정 논의
	2020.9.1	조사범위 및 관련 문헌 논의
기초 조사	2020.8~10	문헌조사
검토 회의	2020.10.13	현장 조사와 지역원로 의견 청취, 주요 자료 소장자 파악
선정회의	2020.11.6	핵심 항목 1차 선정
의견 수렴	2020.11.18	문화재활용과 연계 방안 고려
선정회의	2020.12.28	세미나, 지역원로와 전문가 의견 청취, 핵심 항목 최종 선정

## 2) 연구자원의 분류

86) 전문가들의 의견 수립, 중재, 타협의 방식으로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한 하향식 의견 도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

[https://ko.wikipedia.org/wiki/델파이\\_기법](https://ko.wikipedia.org/wiki/델파이_기법)

87) 김현, 김광우, 앞의 글, 502~512쪽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지식 콘텐츠 개발은 역사·문화 유적지의 건물, 조형물 박물관의 유물, 미술관·기념관의 전시 작품 등 물리적인 대상의 형상을 디지털 데이터로 기록할 뿐 아니라, 그 유물이나 유적에 관한 민담, 설화, 학술적인 지식, 그 지식 정보 속에 포함된 인물, 장소, 사건, 문헌 등이 모두 온라인상에서 상호 참조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큐레이션 기반의 백과사전적 아카이브를 목표로 한다.<sup>88)</sup> 백과사전적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온라인 편찬시스템을 통한 지식 콘텐츠의 편찬과정이 필요하다.<sup>89)</sup> 지역마다 공동체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가 있고 이러한 특색은 편찬과정에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지식 정보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강조해야 할 주요 자원과 주요 자원을 설명할 보조자원의 구분이 필요하다. 자원의 형식은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 3D 모델 등 다양하지만 기본적인 서술 방법은 텍스트라 할 수 있다. 텍스트로 서술하는 항목을 편찬시스템에서는 핵심 항목, 문맥 항목, 목록 항목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표 II -9】 편찬시스템의 역사문화자원 분류

구분	구성 요소
핵심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목의 개요</li> <li>• 항목 간의 문맥 관계</li> <li>• 관련 참조자원 등</li> </ul>
문맥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목의 개요</li> <li>• 필요시 추가 가능</li> </ul>
목록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항목 자체만 존재)</li> </ul>

핵심 항목은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함의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사실 데이터로서 주요 자원에 해당한다. 핵심 항목의 구성 요소는 기본 개요와 항목 간의 관계, 관련 웹 자원 또는 학술자원 등의 참조자원을 수반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오락적 이용에 도움이 되도록 지식 편찬자(Curator)가 편찬하는 자원을 가리킨다. 문맥 항목은 핵심 항목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구성 요소는 기본 개요에 관한 최소한의 설명만으로 가능하며 필요하면 참조자원 등을 추가할 수 있다. 목록 항목은 목록만으로 각 항목을 보조하며 구성 요소는 필요하지 않다. 모든 항목은 독립적으로 존

88) 김현, 「메타버스와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정보학교실 수업 자료, 2022.3.18.

[http://dh.aks.ac.kr/Edu/wiki/index.php/메타버스와\\_시맨틱\\_데이터\\_아카이브](http://dh.aks.ac.kr/Edu/wiki/index.php/메타버스와_시맨틱_데이터_아카이브)

89) III. 역사문화자원 아카이브 플랫폼 설계 2. 지식 콘텐츠 편찬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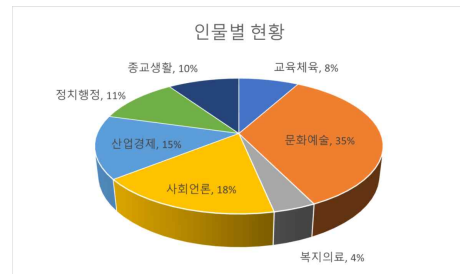
재할 수 없으며, 지식 편찬자에 의해 언제든지 상호전환이 가능하다. 즉 합의된 절차에 의해 지역을 대표하는 자원이라고 판단하면, 문맥 항목이나 목록 항목을 핵심 항목으로 전환할 수 있고, 지식 편찬자는 해당 항목에 각 구성 요소를 추가하면 된다.

### 3) 주요 연구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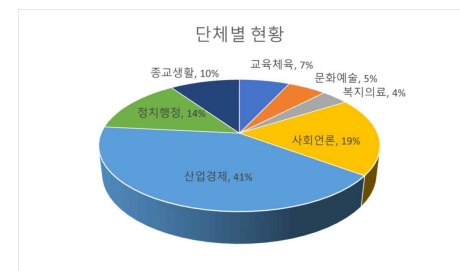
기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텍스트, 이미지, 영상, 3D 모델, 도면 등의 설명 자료를 보완해야 하는 주요 연구자원이 선정되었다. 주요 연구자원은 문화유산과 역사자원, 건축자원, 3D 모델 대상 건축물로 구분되며 총 682건이다. 부문별로 역사자원은 487건, 건축자원은 120건, 3D 모델 대상 건축물은 75건이다.

#### 가. 역사자원

역사자원은 1차 선정한 400건의 핵심 항목을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 선정이 이루어졌다. 인물 49건, 단체 38건이 추가된 인물 199건, 단체 188건, 사건 100건으로 총 487건의 핵심 항목이 최종 선정됐다.<sup>90)</sup> 인물 분야의 선정 결과는 문화예술(35%), 사회언론(18%), 산업경제(15%) 순이었다. 사회운동에는 독립운동가와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포함한 결과이다. 선정 인물의 비율로 살펴보면 예술도시 목표의 면모를 알 수 있다. 단체 분야는 산업경제(41%), 사회언론(19%), 정치행정(14%) 순이었다. 호남 제일의 무역항으로 자리 잡았던 상업 도시답게 산업경제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



【그림 II-12】 역사문화자원 인물별 현황



【그림 II-13】 역사문화자원 단체별 현황

90) 【부록 II-1】 목포 역사문화자원 선정 결과표

【표Ⅱ-10】 역사자원의 분류

구분	인물	단체	사건
교육체육	16	13	9
문화예술	69	10	7
복지의료	8	7	3
사회언론	35	36	41
산업경제	30	78	20
정치행정	22	26	11
종교생활	19	18	9
총계	199	188	100

다. 건축자원

건축자원은 총 120개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보존상태에 따라 상·중·하로 등급을 분류하였다.<sup>91)</sup> 각 건축자원은 내·외부 사진, 도면, 조사표(건축물대장·폐쇄 지적도 포함) 작성을 기본으로 하며, 상급에 해당하는 건축자원은 문화유산 신청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다.<sup>92)</sup>

【표Ⅱ-11】 목포시 단위 건물 유산 등급 분류<sup>93)</sup>

등급	조사기준	정리기준	수량
상	• 역사적 · 경관적 · 예술적 · 사회문화적 가치가 높으며, 공간, 구조, 마감 재료 등 보존 상태가 양호한 대상	평면도·입면도·단면도	18
중	• 공간, 구조, 마감 재료 등 일부 변형 혹은 훼손되었으나, 보수 정비를 통해 원형 회복이 가능한 대상	평면도·입면도	23
하	• 공간, 구조, 마감 재료 등 원형이 변형 혹은 훼손되었으나 활용 가치가 높은 대상 •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경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입지를 가진 대상	평면도·입면도	98

91) 【부록Ⅱ-2】 목포 근대건축자원 조사 목록표

92) 애초의 목표는 20개의 건축자원이었으나 실측 조사 결과 18건만 신청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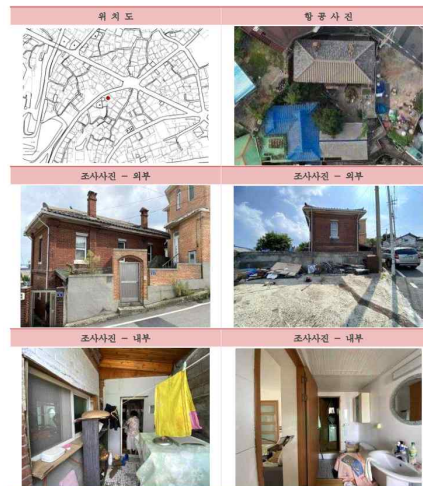
93) 김현, 김광우, 앞의 글, 41쪽

분류	A-12	건물명	마인게터로26번길 5 가옥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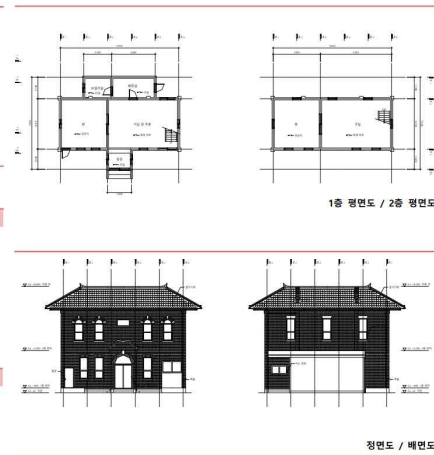
### 1. 개요

주소	목포시 마인게터로26번길 5(죽곡동)	
건축연도	1951년	
건축면적	122.31㎡ / 42.64㎡ / 24.79㎡	
연면적	122.31㎡ / 42.64㎡ / 24.79㎡	
구조	연와조 / 목조 / 목조	
용도	단독주택	
층수	지상 2층 / 지상 1층 / 지상 1층	
저층형태	와 / 굽 / 슬래이트 / 아연습	
외부 마감	적벽돌	

### 2. 현황



### 3.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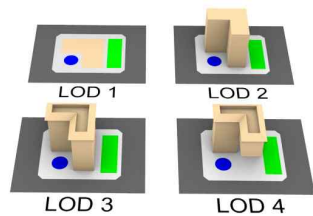
### 4. 소결

종합결과 및 조사 의견	
연혁	1951.10.01년 소유주 등록
보존상태	기존 목구조, 창호 등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음 건립 당시에는 거실, 방 등이 다다미방이었으나, 현재는 리모델링 되어 있음.
주요특징	붉은 벽돌을 주요 재료로 사용한 2층 가옥임 장방형 평면으로 정면에 돌출된 현관이 있고, 각 층은 거실과 방으로 구성된 외관, 현관(포치), 창호 등을 통해 일반 가옥들과는 다른 옛 모습을 엿볼 수 있음 (2층은 조사여건이 되지 않음)

【그림 II -14】 목포시 건축자원 조사 결과

## 라. 3D 모델 대상 건축물

3D 모델 제작을 위한 건축물은 문화유산 32건과 건축자원 중 목포시의 요청에 따른 43건을 추가해 총 75건을 대상으로 했다. 3D 모델은 메타버스 등 온라인 환경의 활용에 적합하도록 실사 기반의 LOD3 수준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림 II -15】 LOD Model<sup>94)</sup>



【그림 II -16】 3D Model

94) 김현우, 이건일, 「도시·건축형태 모델링의 정밀도(LOD, Level Of Detail)가 CFD 시뮬레이션 결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12), 한국산학기술학회, 2021, 311쪽

LOD1 : 2차원 평면정보 위에 재료에 따른 물성만 설정

LOD2 : LOD1에 높이 값을 추가한 3차원 입체정보를 바탕으로 모델링

LOD3 : LOD2에 지붕의 구체적인 형상을 추가하여 모델링

LOD4 : LOD3에 저층부 공간인 필로티의 구체적인 형상을 반영하여 모델링



【표 II -12】 3D 대상 건축물<sup>95)</sup>

번호	명칭	문화재 지정/등록 번호 <sup>96)</sup>	건립연대
1	구 목포 일본영사관	사적 제289호	1900년
2	목포시사	시도기념물 제21호	1907년
3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시도기념물 제174호	1921년
4	목포진지	시도문화재자료 제137호	복원
5	목포 변화로 일본식가옥-1	등록문화재 제718-1호	일제강점기
6	목포 변화로 일본식가옥-2	등록문화재 제718-2호	1959년
7	목포 변화로 일본식가옥-3	등록문화 제 제718-3호	1935년(이전)
8	목포 영산로 일본식가옥	등록문화재 제718-4호	1937년
9	구 목포부립병원 관사	등록문화재 제718-5호	1920년대
10	구 목포일본기독교회	등록문화재 제718-6호	1922년(일제강점기)
11	목포 변화로 일본식상가주택-1	등록문화재 제718-7호	1935년(이전)
12	목포 해안로 일본식상가주택	등록문화재 제718-8호	1935년(이전)
13	목포 해안로 교차로 상가주택	등록문화재 제718-9호	일제강점기(1962년)
14	목포 부두 근대상가주택	등록문화재 제718-10호	1949년(일제강점기)
15	구 동아부인상회목포지점	등록문화재 제718-11호	1935년(이전)
16	목포 변화로 일본식상가주택-2	등록문화재 제718-12호	1957년(일제강점기)
17	목포 변화로 일본식상가주택-3	등록문화재 제718-13호	1949년(일제강점기)
18	목포 해안로 붉은벽돌창고	등록문화재 제718-14호	1964년(일제강점기)
19	구 목포화신연쇄점	등록문화재 제718-15호	1935년(이전)
20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	등록문화재 제29호	1929년
21	목포공립심상소학교 강당	등록문화재 제30호	1929년
22	목포 구 청년회관	등록문화재 제43호	1925년
23	목포정명여자중학교 구 선교사사택	등록문화재 제62호	1905년
24	목포양동교회	등록문화재 제114호	1910년
25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등록문화재 제239호	1950년(일제강점기)
26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	등록문화재 제340호	1933년
27	목포 천주교 구 교구청	등록문화재 제513호	1937년
28	구 목포부청 서고	등록문화재 제588호	1932년
29	구 목포문태고등학교 본관	등록문화재 제640호	일제강점기
30	정광정혜원	등록문화재 제696호	1917년
31	천주교 경동성당	등록문화재 제764호	1954년
32	구 목포세관 창고 2동	등록문화재 제786호	1950년
33	변화로 7 (박성준가옥)		1935년(이전)
34	1897여행자쉼터		1957년(일제강점기)
35	변화로 36-1 상가		1955년(일제강점기)

95) 김현, 김광우, 앞의 글, 436~438쪽

번호	명칭	문화재 지정/등록 번호 <sup>96)</sup>	건립연대
36	번화로 54-1 상가		1959년(일제강점기)
37	번화로 58-2 상가		1935년(이전)
38	번화로 59 상가		1981년
39	번화로 59-2 상가 (쉐그린)		1935년(이전)
40	번화로 60 상가 (김은주화과자점)		1950년(일제강점기)
41	번화로 58 상가 (나전철기공방)		1935년(이전)
42	번화로 60-3 상가 (삼성전자)		1955년(일제강점기)
43	번화로 62-1 상가 (손소영갤러리앤카페)		1954년(일제강점기)
44	번화로 70-1 상가 (은주공방)		1955년(일제강점기)
45	번화로 70-2 상가		1955년(일제강점기)
46	번화로 70-3 상가 (딱오라이)		1955년(일제강점기)
47	영산로 10번길 9 상가 (유달문구)		1935년(이전)
48	해안로 229번길 4 상가 (대광전자)		1951년(일제강점기)
49	해안로 229번길 6 상가 (진도모타)		1951년(일제강점기)
50	해안로 229번길 10 상가 (유달월예사)		1951년(일제강점기)
51	해안로 229번길 13-1 상가 (진미회센터)		1957년(일제강점기)
52	해안로 229번길 18-5 창고		1964년(일제강점기)
53	해안로 229번길 20 상가 (야마하)		1956년(일제강점기)
54	해안로 229번길 20-1 상가		1935년(이전)
55	해안로 229번길 20-2 (갑자옥모자점)		1966년
56	해안로 229번길 24 상가 (자라제일화물)		1935년(이전)
57	해안로 229번길 27-1 가옥		1935년(이전)
58	해안로 229번길 28-1 (동아인쇄출판)		1939년(일제강점기)
59	해안로 237번길 19-2 가옥		1935년(이전)
60	해안로 249번길 32 (복산저울금고)		1935년(이전)
61	불종대길 15-1 가옥		1943년
62	불종대길 18 (문익수가옥)		1908년
63	수강로 4번길 5-1 (전남상회)		1955년(일제강점기)
64	수강로 4번길 192 (신광상사창고)		1962년
65	수강로 12번길 23-3 가옥		일제강점기
66	영산로 26-1 (보람야채마트)		1958년(일제강점기)
67	영산로 59번길 (구춘화당한약방)		1929년
68	만호로 18-70 (안덕상회)		1935년
69	만호로 40-12 (진성어망창고)		1958년
70	차범석길 23번길 1 가옥		1937년
71	차범석길 35번길 (목포북교동교회)		1958년
72	마인계터로 26번길 5 가옥		1951년
73	북교길 31 가옥 (백년한옥)		1920년대

번호	명칭	문화재 지정/등록 번호 <sup>96)</sup>	건립연대
74	해안로 105번길 (구유곽상가)		미등재
75	해안로 105번길 (구유곽상가)		미등재

---

96) 문화재 번호는 2020년 현재 상태임, 2023년 「국가유산기본법」에 의해 문화재 번호 체계가 사라짐

【부록 II -1】 목포 역사문화자원 선정 결과표

번호	분류	범주	세부분류	내용
1	인물	교육체육	교육	김면수 (金冕洙, ?~1955)
2	인물	교육체육	교육	김방한 (金芳漢, 1925~2001)
3	인물	교육체육	교육	마올리 (Julia. A. Martin, 1869~1944)
4	인물	교육체육	교육	맥머피 (Ada. McMurphy, 1883~1970)
5	인물	교육체육	교육	맥컬리 (Henry Douglas McCallie, 1881~1946)
6	인물	교육체육	교육	유서백 (J. S. Nisbet, 1869~1949)
7	인물	교육체육	교육	유애나 (A. Nisbet, 1869~1920)
8	인물	교육체육	교육	이경수 (李敬洙, 1929 ~ ? )
9	인물	교육체육	교육	이복주 (李福柱, 1919~1997)
10	인물	교육체육	교육	조마구레 (Margaret H. Hopper, 1886~1976)
11	인물	교육체육	교육	천복운 (千福運 ? ~ ?)
12	인물	교육체육	교육	커밍 (D. J. Cumming, 1892~1971)
13	인물	교육체육	체육	강세철 (康世哲, 1926~2007)
14	인물	교육체육	체육	노창호(盧昶鎬, ?~2001)
15	인물	교육체육	체육	문성길 (文成吉, 1963 ~ )
16	인물	교육체육	체육	위쌍숙(魏雙淑, 1937~ )
17	인물	문화예술	공예	장주원 (張周元, 1937 ~ )
18	인물	문화예술	국악	신영희 (申英姬, 1942 ~ )
19	인물	문화예술	국악	안향련 (安香蓮, 1944~1981)
20	인물	문화예술	국악	장월중선 (張月中仙, 1925~1998)
21	인물	문화예술	국악	조상현 (趙相賢 1939 ~ )
22	인물	문화예술	국악	함동정월(咸洞庭月,1917~1995)
23	인물	문화예술	대중문화	강대진 (姜大振, 1936~1987)
24	인물	문화예술	대중문화	김시스터즈(The Kim Sisters, 1953~1975)
25	인물	문화예술	대중문화	남진 (南鎭, 1945 ~ )
26	인물	문화예술	대중문화	문일석 (文一石, ?~?)
27	인물	문화예술	대중문화	손석우 (孫夕友, 1920~2019)
28	인물	문화예술	대중문화	이난영 (李蘭影, 1916~1965)
29	인물	문화예술	대중문화	이봉룡 (李鳳龍 1914~1987)
30	인물	문화예술	대중문화	이수미 (李洙美, 1952~ )
31	인물	문화예술	대중문화	장옥조 (1947 ~ )
32	인물	문화예술	대중문화	조미미 (曹美美, 1947~2012)
33	인물	문화예술	대중문화	최병호 (崔丙浩, 1916~1994)
34	인물	문화예술	무용	이매방 (李梅芳, 1926~2015)
35	인물	문화예술	무용	최진열 (崔振烈, 1926~2012)
36	인물	문화예술	무용	최청자 (崔淸子, 1945 ~ )
37	인물	문화예술	무용	홍정희 (洪禎禧, 1934~1997)

번호	분류	범주	세부분류	내용
38	인물	문화예술	문학	권일송 (權逸松, 1933~1995)
39	인물	문화예술	문학	김시라 (金詩羅, 1945~2001)
40	인물	문화예술	문학	김우진 (金祐鎭, 1897~1926)
41	인물	문화예술	문학	김은국 (金恩國, 1932~2009)
42	인물	문화예술	문학	김일로 (金一路, 1911~1984)
43	인물	문화예술	문학	김정숙 (金正淑, 1933~2006)
44	인물	문화예술	문학	김지하 (金芝河, 1941~ )
45	인물	문화예술	문학	김진섭 (金晉燮, 1903~?)
46	인물	문화예술	문학	김현 (金炫, 1942~1990)
47	인물	문화예술	문학	무라까미 교시 (村上杏史, 1907~1988)
48	인물	문화예술	문학	박화성 (朴花城, 1904~1988)
49	인물	문화예술	문학	백두성(白斗星, 1917~?)
50	인물	문화예술	문학	이가형(李佳炯, 1921~2001)
51	인물	문화예술	문학	이생연 (李生淵, 1938~2005)
52	인물	문화예술	문학	조희관 (曹喜灌, 1905~1958)
53	인물	문화예술	문학	차범석 (車凡錫, 1924~2006)
54	인물	문화예술	문학	차재석 (車載錫, 1925~1983)
55	인물	문화예술	문학	천승세(千勝世, 1939~2020)
56	인물	문화예술	문학	최인훈(崔仁勳, 1934~2018)
57	인물	문화예술	문학	최하림 (崔夏林, 1939~2010)
58	인물	문화예술	문학	황현산(黃鉉産, 1945~2018)
59	인물	문화예술	미술	김암기 (金岩基, 1932~2013)
60	인물	문화예술	미술	김영자 (金英子, 1922~2015)
61	인물	문화예술	미술	김용구 (金容九, 1933~2015)
62	인물	문화예술	미술	김환기(金煥基, 1913~1974)
63	인물	문화예술	미술	문재덕 (文在憲, 1918~1950)
64	인물	문화예술	미술	백영수(白榮洙, 1922~2018)
65	인물	문화예술	미술	양수아(梁秀雅, 1920~1972)
66	인물	문화예술	미술	양인옥(梁寅玉, 1926~1999)
67	인물	문화예술	미술	장덕 (張德, 1910~1976)
68	인물	문화예술	미술	허건 (許健, 1908~1987)
69	인물	문화예술	미술	허림 (許林 1917~1942)
70	인물	문화예술	미술	허형(許瀼, 1862~1938)
71	인물	문화예술	바둑	조훈현(曹薰鉉, 1953 ~ )
72	인물	문화예술	사진	곽종선 (郭鍾善, 1910~1950)
73	인물	문화예술	사진	김상육 (金相六, 1917~1977)
74	인물	문화예술	사진	박종길 (1940~)
75	인물	문화예술	사진	이승모 (李承模, ?~?)
76	인물	문화예술	사진	이영원 (李永院, 1919~2011)

번호	분류	범주	세부분류	내용
77	인물	문화예술	사진	장종기 (張宗基, 1924~2010)
78	인물	문화예술	서예	김정재 (金正財, 1932~1998)
79	인물	문화예술	서예	서희환 (徐喜煥, 1934~1995)
80	인물	문화예술	서예	손재형 (孫在馨, 1903~1981)
81	인물	문화예술	연극	김길호(金吉浩, 1935 ~ 2017)
82	인물	문화예술	연극	김성옥 (金聲玉, 1935 ~ )
83	인물	문화예술	연극	이화삼(李化三, 1911~?)
84	인물	문화예술	영화	나오미(鄭英一, 1951~?)
85	인물	문화예술	조각	손양동 (孫良銅, 1916~2015)
86	인물	복지의료	사회사업가	윤치호 (尹致浩, 1909~1951)
87	인물	복지의료	사회사업가	윤학자 (尹鶴子, 1912~1968)
88	인물	복지의료	사회사업가	이방호 (李方浩, 1914~1993)
89	인물	복지의료	사회사업가	정재현 (鄭宰賢, 1906~1998)
90	인물	복지의료	사회사업가	최찬열 (崔燦悅, 1906~2006)
91	인물	복지의료	의사	차남수 (車南守, 1903~1990)
92	인물	복지의료	의사	최섭 (崔燮, 1905~2000)
93	인물	복지의료	의학자	김정룡 (1935 ~ 2016)
94	인물	사회언론	노동운동가	서병인 (徐炳寅, 1896~1948)
95	인물	사회언론	노동운동가	윤기현 (尹基鉉, 1900~?)
96	인물	사회언론	노동운동가	이기동 (李琪同, 1906~?)
97	인물	사회언론	노동운동가	이인형 (李麟炯, 1914~1934)
98	인물	사회언론	노동운동가	조극환 (趙克煥, 1887~1966)
99	인물	사회언론	노동운동가	조점환 (趙點煥, 1907~1940)
100	인물	사회언론	독립운동가	남궁혁 (南宮赫, 1900~1971)
101	인물	사회언론	민주열사	강상철 (姜相喆, 1963~1986)
102	인물	사회언론	민주열사	박승희 (朴勝熙, 1971~1991)
103	인물	사회언론	민주열사	박태영 (朴泰泳, 1967~1987)
104	인물	사회언론	민주열사	안철 (安哲, 1946~2003)
105	인물	사회언론	사회운동가	권영례 (權寧禮, ? ~ ? )
106	인물	사회언론	사회운동가	김정수 (金正洙, 1910~?)
107	인물	사회언론	사회운동가	김철진 (金哲鎭, 1900~1971)
108	인물	사회언론	사회운동가	배상옥 (裴相玉, 1862~1894)
109	인물	사회언론	사회운동가	서한태 (1918 ~2018)
110	인물	사회언론	사회운동가	오도근(吳道根, 1901~?)
111	인물	사회언론	사회운동가	장병준 (張炳俊, 1893~1972)
112	인물	사회언론	사회운동가	타카네 노부레 (高根信禮, ?~?)
113	인물	사회언론	애국지사	강석봉 (姜錫奉, 1890~1956)
114	인물	사회언론	애국지사	김귀남 (金貴南, 1904~1990)
115	인물	사회언론	애국지사	박복영 (朴福永, 1890~1977)

번호	분류	범주	세부분류	내용
116	인물	사회언론	애국지사	박상렬 (朴相烈, 1897~1981)
117	인물	사회언론	애국지사	박상오(朴尙吾, 1910~1989)
118	인물	사회언론	애국지사	박애순 (朴愛順, 1896~1969)
119	인물	사회언론	애국지사	배치문 (裴致文, 1890~1942)
120	인물	사회언론	애국지사	서상봉 (徐相鳳, 1870~1927)
121	인물	사회언론	애국지사	서화일 (徐化壹, 1881~1937)
122	인물	사회언론	언론	곽복산 (郭福山, 1911~1971 )
123	인물	사회언론	언론	손수겸 (孫守兼, ?~?)
124	인물	사회언론	언론	조효석 (趙孝錫, 1922~1998)
125	인물	사회언론	언론	최병우 (崔秉宇, 1924~1958)
126	인물	사회언론	여성운동가	고연우 (高蓮宇, 1897~?)
127	인물	사회언론	여성운동가	천귀례 (千貴禮, 1903~?)
128	인물	산업경제	금융인	니시카와 타로우이치 (西川太郎一, ?~?)
129	인물	산업경제	금융인	차성술 (車成述, 1866~?)
130	인물	산업경제	사업가	기무라 다케오 (木村健夫, 1868~?)
131	인물	산업경제	사업가	김기운 (金基運, 1920~2018 )
132	인물	산업경제	사업가	김문옥 (金文玉, 1897~1966)
133	인물	산업경제	사업가	김상두 (金相斗, 1911~1975)
134	인물	산업경제	사업가	김상섭 (金商燮, 1876~1933)
135	인물	산업경제	사업가	김준형 (金浚炯, 1914~2008)
136	인물	산업경제	사업가	나달수 (羅達洙, 1917~2010)
137	인물	산업경제	사업가	마쓰이 유지로 (松井邑次郎, 1868~?)
138	인물	산업경제	사업가	무라카미 나오스케 (村上直助, 1875~?)
139	인물	산업경제	사업가	문재철 (文在喆, 1883~1955)
140	인물	산업경제	사업가	손용기 (孫容基, 1898~?)
141	인물	산업경제	사업가	야마노 타키조 (山野瀧三, 1888~?)
142	인물	산업경제	사업가	양재봉 (梁在奉, 1925~2010)
143	인물	산업경제	사업가	우찌다니 만페이 (內谷萬平, 1881~?)
144	인물	산업경제	사업가	이훈동 (李勳東, 1917~2010)
145	인물	산업경제	사업가	임광행 (林廣幸, 1919~2002)
146	인물	산업경제	사업가	전태홍 (全泰洪, 1937~2005)
147	인물	산업경제	사업가	정규성(丁奎成, 1909 ~1992)
148	인물	산업경제	사업가	정병조 (鄭炳朝, 1879~1970)
149	인물	산업경제	사업가	정인영 (鄭仁永, 1920~2006)
150	인물	산업경제	사업가	차남진 (車南鎭, 1893~1970)
151	인물	산업경제	사업가	천독근 (千篤根, 1905~1959)
152	인물	산업경제	사업가	현기봉(玄基奉, 1855 ~ 1924)
153	인물	산업경제	사업가	현준호 (玄俊鎬, 1889~1950)
154	인물	산업경제	사업가	홍순기 (洪舜基, 1929~2012)

번호	분류	범주	세부분류	내용
155	인물	산업경제	사업가	후쿠다 유조 (福田有造, 1892~?)
156	인물	산업경제	상인	왕국상 (王國詳, ?~?)
157	인물	산업경제	상인	학경해 (郝鏡海, ?~?)
158	인물	정치행정	관료	김면수 (金冕秀, 1855~?)
159	인물	정치행정	관료	김성규 (金星圭, 1863~1936)
160	인물	정치행정	관료	모리카와 케이시로 (森川季四郎, ?~?)
161	인물	정치행정	관료	스테든 (J. staden, ?~?)
162	인물	정치행정	관료	아머 (W. Armour, ?~?)
163	인물	정치행정	관료	와카마쓰 도사부로 (若松兎三郎, 1869~1953)
164	인물	정치행정	관료	진상언 (秦尙彦, 1857~?)
165	인물	정치행정	관료	하시모토 토요타로 (橋本豊太郎, 1868~?)
166	인물	정치행정	관료	홉킨스 (L. Hopkins, 1859~1918)
167	인물	정치행정	관료	히사미즈 사부로 (久水三郎, 1857~?)
168	인물	정치행정	관료	힌체 (J. Hintze, ?~ 1908)
169	인물	정치행정	정치행정	강기천(姜起千,1927~2019)
170	인물	정치행정	정치행정	강선명(姜善明,1905~1981)
171	인물	정치행정	정치행정	권이담 (權彝淡, 1929~2016)
172	인물	정치행정	정치행정	김경인 (金敬仁, 1925~2001)
173	인물	정치행정	정치행정	김대중 (金大中, 1924~2009)
174	인물	정치행정	정치행정	김영하 (金永廈, 1903~1959)
175	인물	정치행정	정치행정	이남규 (李南圭, 1901~1976)
176	인물	정치행정	정치행정	임기봉 (林基奉, 1905~1982)
177	인물	정치행정	정치행정	임종기 (林鍾基, 1926~2007)
178	인물	정치행정	정치행정	정중섭 (鄭重燮, 1898~1978)
179	인물	정치행정	정치행정	하동현 (河東鉉, 1903~1969)
180	인물	종교생활	생활인	박길수 (朴吉洙, 1928~1994)
181	인물	종교생활	생활인	옥단 (玉丹 ? ~ ?)
182	인물	종교생활	종교	곽우영 (郭宇盈, 1874~1931)
183	인물	종교생활	종교	김익진 (金益鎭, 1906~1970)
184	인물	종교생활	종교	남궁혁 (南宮赫, 1881~ ? )
185	인물	종교생활	종교	노대련 (盧大蓮, ?~1946)
186	인물	종교생활	종교	다께우치 토라야 (竹內虎也, 1868~?)
187	인물	종교생활	종교	데예(Albert Deshayes, 曹有道, ?~?)
188	인물	종교생활	종교	레이놀즈 (William David Reynolds, 1867~1951)
189	인물	종교생활	종교	문준경(文俊卿, 1891~1950)
190	인물	종교생활	종교	박연세 (朴淵世, 1883~1944)
191	인물	종교생활	종교	법정 (法頂, 1932~2010)
192	인물	종교생활	종교	오웬 (C. C. Owen, 1867~1909)
193	인물	종교생활	종교	유진벨 (Eugene Bell, 1868~1925)



번호	분류	범주	세부분류	내용
194	인물	종교생활	종교	윤식명((尹植明, 1871~1956)
195	인물	종교생활	종교	이성봉(李聖鳳, 1900~1965)
196	인물	종교생활	종교	임성옥 (任成玉, 1871~?)
197	인물	종교생활	종교	조하파 (Joseph Hopper, 1892~1971)
198	인물	종교생활	종교	주재용 (朱在用, 1895~1975)
199	인물	종교생활	종교	포사이드 (Wiley Hamilton Forsythe, 1873~1918)
200	단체	교육체육	체육	목포상무회 (木浦尙武會, 1926~)
201	단체	교육체육	친목회	목포구락부 (木浦俱樂部, 1904~)
202	단체	교육체육	학교	명조유치원 (明昭幼稚園, 1926)
203	단체	교육체육	학교	목포공립고등여학교 (木浦公立高等女學校, 1923)
204	단체	교육체육	학교	목포공립보통학교 (木浦公立普通學校, 1928)
205	단체	교육체육	학교	목포공립상업학교 (木浦公立商業學校, 1928)
206	단체	교육체육	학교	목포공립심상고등소학교 (木浦公立尋常高等小學校, 1929)
207	단체	교육체육	학교	목포문태중학교 (木浦文泰中學校, 1941)
208	단체	교육체육	학교	목포영흥학교 (木浦永興學校, 1929)
209	단체	교육체육	학교	목포정명여학교 (木浦貞明女學校, 1903)
210	단체	교육체육	학교	목포중학교 (木浦中學校, 1942)
211	단체	교육체육	학교	목포항도공립여자중학교 (木浦港都公立女子中學校, 1944)
212	단체	교육체육	학교	희성유치원 (希聖幼稚園, 1926)
213	단체	문화예술	극장	목포극장 (木浦劇場, 1926)
214	단체	문화예술	극장	목포좌 (木浦座, 1904)
215	단체	문화예술	극장	상반좌 (常盤座, 1908)
216	단체	문화예술	극장	평화관 (平和館, 1927)
217	단체	문화예술	문학	목포사론협회 (木浦社論協會, 1923~)
218	단체	문화예술	영화	오리엔탈프로덕션(1927~)
219	단체	문화예술	예술	동춘서커스(東春서커스, 1927~ )
220	단체	문화예술	예술	목포국악원 (木浦國樂院, 1955)
221	단체	문화예술	예술	목포시사 (木浦詩社, 1920)
222	단체	문화예술	예술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목포지부(1928~1935)
223	단체	복지의료	병원	목포부립병원 (木浦府立病院, 1914~1945)
224	단체	복지의료	병원	목포철도병원 (木浦鐵道病院, 1920~)
225	단체	복지의료	병원	목포피병원 (木浦避病院, 1912)
226	단체	복지의료	병원	프랜치병원 (富蘭翠病院, 1916~)
227	단체	복지의료	복지	공생원 (共生院, 1927~)
228	단체	복지의료	복지	구도재생원(龜島再生園, 1930~ )
229	단체	복지의료	복지	성미회 (成美會, 1919~)
230	단체	사회언론	노동단체	목포노동총동맹 (木浦勞動總同盟)
231	단체	사회언론	노동조합	목포고용인조합 (木浦雇傭人組合, 1925~)
232	단체	사회언론	노동조합	목포면업노동조합 (木浦棉業勞動組合, 1925~)

번호	분류	범주	세부분류	내용
233	단체	사회언론	노동조합	목포방직노동조합 (木浦紡織勞動組合, 1925~)
234	단체	사회언론	노동조합	목포선하노동조합 (木浦船荷勞動組合, 1925~)
235	단체	사회언론	노동조합	목포자유노동조합 (木浦自由勞動組合, 1925~)
236	단체	사회언론	노동조합	목포제유노동조합 (木浦製油勞動組合, 1925~)
237	단체	사회언론	노동조합	목포하차노동조합 (木浦下車勞動組合, 1925~)
238	단체	사회언론	노동조합	암태소작인회 (巖泰小作人會, 1923~)
239	단체	사회언론	사회단체	근우회 (勤友會, 1927~)
240	단체	사회언론	사회단체	목포전위동맹 (木浦前衛同盟, 1925)
241	단체	사회언론	사회단체	목포청년동맹 (木浦青年同盟, ~)
242	단체	사회언론	사회단체	목포청년회 (木浦青年會, 1920~)
243	단체	사회언론	사회단체	목포협회 (木浦協會, 1936~)
244	단체	사회언론	사회단체	무목청년연맹 (務木青年聯盟, 1925)
245	단체	사회언론	사회단체	신간회목포지회 (新幹會木浦支會, 1927~)
246	단체	사회언론	사회단체	애국부인회목포위원부(愛國婦人會木浦委員部, 1904)
247	단체	사회언론	사회단체	일본적십자사목포위원부 (日本赤十字社木浦委員部, 1904~)
248	단체	사회언론	언론	목포신보 (木浦新報, 1898~)
249	단체	사회언론	언론	목포일보 (木浦日報, 1946~1973)
250	단체	사회언론	언론	전남인쇄주식회사 (全南印刷株式會社, 1919~)
251	단체	사회언론	언론	호남평론 (湖南評論, 1935~1937)
252	단체	사회언론	이익단체	계림장업단 (鷄林獎業團, 1896~)
253	단체	사회언론	이익단체	면화재배협회 (棉花栽培協會, 1905~)
254	단체	사회언론	이익단체	목포곡물상조합 (木浦穀物商組合, 1921~)
255	단체	사회언론	이익단체	목포금요회 (木浦金曜會, 1923~)
256	단체	사회언론	이익단체	목포농담회 (木浦農談會, 1912~)
257	단체	사회언론	이익단체	목포문옥조합 (木浦問屋組合, 1920~)
258	단체	사회언론	이익단체	목포미곡조합 (木浦米穀組合, 1939~)
259	단체	사회언론	이익단체	목포상공동지회 (木浦商工同志會, 1930~)
260	단체	사회언론	이익단체	목포상공회의소 (木浦商工會議所, 1899~)
261	단체	사회언론	이익단체	목포선주조합 (木浦船主組合, 1937~)
262	단체	사회언론	이익단체	목포예기권번 (木浦藝妓券番, 1930~)
263	단체	사회언론	이익단체	목포의사회 (木浦醫師會, 1915~1941)
264	단체	사회언론	이익단체	목포포목상조합 (木浦布木商組合, 1938~)
265	단체	사회언론	이익단체	목포해태조합 (木浦海苔組合, 1929~)
266	단체	산업경제	고무	금강고무공업소 (金剛고무工業所, 1924~)
267	단체	산업경제	고무	동아고무주식회사 (東亞고무株式會社, 1925~)
268	단체	산업경제	고무	목포고무공업소 (木浦고무工業所, 1924~)
269	단체	산업경제	금융	동양척식회사 목포지점 (東洋拓殖會社木浦支店, 1919~)
270	단체	산업경제	금융	목포금융조합 (木浦金融組合, 1919~)
271	단체	산업경제	금융	목포무진주식회사 (木浦無盡株式會社, 1922~)

번호	분류	범주	세부분류	내용
272	단체	산업경제	금융	목포신탁 (木浦信託, 1922~)
273	단체	산업경제	금융	목포창고금융주식회사 (木浦倉庫金融株式會社, 1919~)
274	단체	산업경제	금융	무안금융조합 (務安金融組合, 1918~)
275	단체	산업경제	금융	전남신탁 (全南信託, 1929~)
276	단체	산업경제	금융	주식회사 식산구락부 (株式會社殖産俱樂部, 1927~)
277	단체	산업경제	내화	조선내화주식회사 (朝鮮耐火株式會社, 1938)
278	단체	산업경제	농업	겸전산업주식회사 (鎌田産業株式會社, 1913~)
279	단체	산업경제	농업	덕전양행 (德田洋行, 1911~)
280	단체	산업경제	농업	목포식산주식회사 (木浦殖産株式會社, 1906~)
281	단체	산업경제	농업	복전농사주식회사 (福田農事株式會社, 1920~)
282	단체	산업경제	농업	조선농업합자회사 (朝鮮農業合資會社, 1915~)
283	단체	산업경제	농업	조선실업주식회사 (朝鮮實業株式會社, 1907~)
284	단체	산업경제	농업	합명회사국무농장 (合名會社國武農場, 1921)
285	단체	산업경제	도기	행남사 (杏南社, 1942~2015)
286	단체	산업경제	도장	명문당(名文堂, 1940~ )
287	단체	산업경제	면화	남북면업주식회사 (南北綿業株式會社, 1919~)
288	단체	산업경제	면화	전남제면합자회사 (全南製綿合資會社, 1927~)
289	단체	산업경제	면화	조선면화동업회 (朝鮮棉花同業會, 1927~)
290	단체	산업경제	면화	조선면화주식회사 (朝鮮棉花株式會社, 1913~)
291	단체	산업경제	면화	한국면업주식회사 (韓國綿業株式會社, 1906~)
292	단체	산업경제	모자	갑자옥모자점 (甲子屋帽子店, 1927)
293	단체	산업경제	부동산	상성합명회사 (祥星合名會社, 1925)
294	단체	산업경제	서점	문화당서점 (文化堂書店, 1945~2000)
295	단체	산업경제	수산	목포수산주식회사 (木浦水産株式會社, 1905~)
296	단체	산업경제	수산	전라남도수산회 (全羅南道水産會, 1923~)
297	단체	산업경제	수산	주식회사 옥어시장 (株式會社旭魚市場, 1921~)
298	단체	산업경제	숙박	목포호텔 (木浦ホテル, 1930)
299	단체	산업경제	양조	대총장유양조소 (大塚醬油釀造所, 1906~)
300	단체	산업경제	양조	목포양조주식회사 (木浦釀造株式會社, 1929~)
301	단체	산업경제	양조	목포장유양조주식회사 (木浦醬油釀造株式會社, 1919~)
302	단체	산업경제	양조	보해양조주식회사 (寶海釀造株式會社, 1950~)
303	단체	산업경제	양조	삼학산업주식회사 (三鶴産業株式會社, 1947~1973)
304	단체	산업경제	양조	석산주조장 (石山酒造場, 1898~)
305	단체	산업경제	양조	전남소주주식회사 (全南燒酎株式會社, 1918~)
306	단체	산업경제	요리	동운루 (東雲樓, 1897~)
307	단체	산업경제	요리	인의관 (仁義館, 1930)
308	단체	산업경제	운수	남일운수주식회사 (南一運輸株式會社, 1924~)
309	단체	산업경제	운수	대판상선주식회사 (大阪商船株式會社, 1905~)
310	단체	산업경제	운수	목포해운주식회사 (木浦海運株式會社, 1920~)

번호	분류	범주	세부분류	내용
311	단체	산업경제	운수	조선우선목포출장소 (朝鮮郵船木浦出張所, 1912)
312	단체	산업경제	운수	조선통운목포지점 (朝鮮通運木浦支店, 1920)
313	단체	산업경제	은행	광주농공은행 (光州農工銀行, 1906~)
314	단체	산업경제	은행	십팔은행 목포지점 (十八銀行木浦支店, 1906~)
315	단체	산업경제	은행	제일은행 목포출장소 (第一銀行木浦出張所, 1898~)
316	단체	산업경제	은행	조선식산은행 목포지점 (朝鮮殖産銀行木浦支店, 1918~)
317	단체	산업경제	은행	조선은행 목포지점 (朝鮮銀行木浦支店, 1910~)
318	단체	산업경제	은행	호남은행 (湖南銀行, 1920)
319	단체	산업경제	은행	호남은행목포지점 (湖南銀行木浦支店, 1920)
320	단체	산업경제	인쇄	광선인쇄소 (光鮮印刷所, 1928~)
321	단체	산업경제	인쇄	목산인쇄소 (株式會社木山印刷所, 1912~)
322	단체	산업경제	인쇄	목포인쇄주식회사 (木浦印刷株式會社, 1907~)
323	단체	산업경제	인쇄	목포활쇄소 (木浦活刷所, 1899~)
324	단체	산업경제	인쇄	호남인쇄소 (湖南印刷所, 1929~)
325	단체	산업경제	자동차	목포자동차 (木浦自動車, 1921)
326	단체	산업경제	잡화	동아부인상회목포지점 (舊東亞婦人商會木浦支店, 1935)
327	단체	산업경제	잡화	목포화신연쇄점 (舊木浦和信連鎖店, 1935)
328	단체	산업경제	잡화	삼중정오복점 (株式會社三中井吳服店, 1924~)
329	단체	산업경제	전기	목포전등주식회사 (木浦電燈株式會社, 1910~)
330	단체	산업경제	정미	주식회사 조일정미소 (株式會社朝日精米所, 1920~)
331	단체	산업경제	제과	청삼제과합자회사 (靑森製菓合資會社, 1928~)
332	단체	산업경제	제빙	목포제빙냉장주식회사 (木浦製氷冷藏株式會社, 1928~)
333	단체	산업경제	제유	일화제유주식회사 (日華製油株式會社, 1918~)
334	단체	산업경제	제유	조선제유주식회사 (朝鮮製油株式會社, 1918~)
335	단체	산업경제	조선	합명회사 하합조선소 (合名會社河合造船所, 1928~)
336	단체	산업경제	직물	목포직물주식회사 (木浦織物株式會社, 1940)
337	단체	산업경제	창고	목포농업창고 (木浦農業倉庫, 1929~)
338	단체	산업경제	철물	구전주조소 (驅田鑄造所, 1924~)
339	단체	산업경제	철물	목포주조주식회사 (木浦鑄造株式會社, 1928~)
340	단체	산업경제	철물	목포철공합명회사 (木浦鐵工合名會社, 1905~1916)
341	단체	산업경제	철물	쌍화창 (雙和昶, 1924~)
342	단체	산업경제	포목	신성호 (新盛號, 1940)
343	단체	산업경제	포목	영성인호 (永盛仁號)
344	단체	정치행정	공기관	광주지법 목포지청 (光州地方法院 木浦地廳, 1910~)
345	단체	정치행정	공기관	권업모범장목포지장 (勸業模範場木浦支場, 1906~)
346	단체	정치행정	공기관	목포경찰서 (木浦警察署, 1897~)
347	단체	정치행정	공기관	목포곡물검사소 (木浦穀物檢査所, ~)
348	단체	정치행정	공기관	목포구재판소 (木浦區裁判所, 1909~)
349	단체	정치행정	공기관	목포무선전신국 (木浦無線電信局, 1925~)

번호	분류	범주	세부분류	내용
350	단체	정치행정	공기관	목포무선전신소 (木浦無線電信所, 1910~1925)
351	단체	정치행정	공기관	목포부 (木浦府廳, 1910~1949)
352	단체	정치행정	공기관	목포세관(부산세관 목포지서) (木浦稅關, 1907~)
353	단체	정치행정	공기관	목포소방조 (木浦消防組, 1926)
354	단체	정치행정	공기관	목포수산물제품검사소 (木浦水産製品檢査所, 1906~)
355	단체	정치행정	공기관	목포우편국 (木浦郵便局, 1929~)
356	단체	정치행정	공기관	목포이사청 (木浦理事廳, 1906~1910)
357	단체	정치행정	공기관	목포일본영사관 (木浦日本領事館, 1896~1906)
358	단체	정치행정	공기관	목포진 (木浦鎭, 1439~1895)
359	단체	정치행정	공기관	목포측후소 (木浦測候所, 1904~)
360	단체	정치행정	공기관	목포토목공영소 (木浦土木工營所, 1915~)
361	단체	정치행정	공기관	목포해관 (木浦海關, 1897~1906)
362	단체	정치행정	공기관	목포해양수산청 (木浦海洋水産廳, 1997)
363	단체	정치행정	공기관	목포형무소 (木浦刑務所, 1909~)
364	단체	정치행정	공기관	무안감리서 (務安監理署, 1903)
365	단체	정치행정	공기관	무안경무서(務安警武署, 1897~1906)
366	단체	정치행정	공기관	무안군청 (務安郡廳, 1914~)
367	단체	정치행정	공기관	무안우체사 (務安郵遞司, 1897~1905)
368	단체	정치행정	공기관	전주전매국 목포출장소 (全州專賣局 木浦出張所,~)
369	단체	정치행정	공기관	조면검사소 (縲綿檢査所, 1927~)
370	단체	종교생활	시설	목포공설시장 (木浦公設市場, 1929)
371	단체	종교생활	시설	목포공회당 (木浦公會堂, 1911)
372	단체	종교생활	시설	목포역 (木浦驛, 1912~)
373	단체	종교생활	시설	일본인공동묘지 (日本人共同墓地)
374	단체	종교생활	시설	조선인공동묘지 (朝鮮人共同墓地)
375	단체	종교생활	시설	화장장 (火葬場)
376	단체	종교생활	종교	달성사 (達聖寺, 1915)
377	단체	종교생활	종교	동본원사목포별원 (東本原寺木浦別院, 1905~)
378	단체	종교생활	종교	목포양동교회 (木浦陽洞教會, 1911)
379	단체	종교생활	종교	목포일본기독교회 (木浦日本基督教會, 1922)
380	단체	종교생활	종교	목포천주교회 (木浦天主教會, 1898~)
381	단체	종교생활	종교	반야사 (般若寺, 1918~)
382	단체	종교생활	종교	북교동교회 (北橋洞教會, 1925)
383	단체	종교생활	종교	송도신사 (松島神社, 1911)
384	단체	종교생활	종교	약사사 (藥師寺, 1927)
385	단체	종교생활	종교	천리교목포선교소 (天理教木浦宣敎所, 1925)
386	단체	종교생활	종교	흥선사 (興禪寺, 1918)
387	단체	종교생활	친목회	목포경상도우회 (木浦慶尙道友會,~)
388	사건	정치행정		목포진 설치 (1397년)

번호	분류	범주	세부분류	내용
389	사건	정치행정		총무공 이순신 고하도 주둔 (1597~1598)
390	사건	사회언론		목포 인근 동학농민혁명 (1893~1894)
391	사건	사회언론		고하도 사건 (1897년)
392	사건	교육체육		목포보통학교(북교) 개교 (1897년)
393	사건	정치행정		목포해관 설치 (1897년)
394	사건	정치행정		무안감리서 설치 (1897.9.12)
395	사건	종교생활		목포 기독교 선교(양동교회) (1898년)
396	사건	사회언론		목포 부두 노동운동 (1898.2)
397	사건	종교생활		목포 천주교 전교 (1898년)
398	사건	정치행정		목포조계지 공매 (1898년)
399	사건	사회언론		경무서 습격 사건 (1899년)
400	사건	사회언론		만인계 (1899~1904)
401	사건	사회언론		목포신보 발행 (1899.6.16)
402	사건	산업경제		목포항 해벽공사 (1899년)
403	사건	복지의료		프렌치병원 설립 (1899년)
404	사건	산업경제		고하도 육지면 재배 (1904년)
405	사건	종교생활		목포기상관측소 (1904년)
406	사건	종교생활		목포 불교 포교 (1908년)
407	사건	종교생활		목포 급수 개시 (1910년)
408	사건	종교생활		목포 식수원 확보(주암댐 등) (1910년 이후)
409	사건	종교생활		목포무선전신소 설치 (1910년)
410	사건	정치행정		목포부청 설치 (1910년)
411	사건	산업경제		조선은행목포지점 (1910년)
412	사건	산업경제		국도 1호선 개통 (1911년)
413	사건	산업경제		호남선 개통 (1914년)
414	사건	사회언론		목포 4.8 독립만세운동 (1919년)
415	사건	산업경제		동양척식회사 설치 (1920년)
416	사건	교육체육		목포상업학교 개교 (1920년)
417	사건	문화예술		목포시사 창립 (1920년)
418	사건	산업경제		호남은행 설립 (1920년)
419	사건	사회언론		암태도소작쟁의 (1923~1924)
420	사건	사회언론		목포청년회관건립과 청년운동 (1925년)
421	사건	문화예술		박화성 소설 발표 (1925년 이후)
422	사건	사회언론		김우진, 윤심덕 정사사건 (1926년)
423	사건	문화예술		목포극장 개관 (1926년)
424	사건	사회언론		목포제유공 파업 (1926년)
425	사건	산업경제		전남물산공진회 개최 (1926년)
426	사건	산업경제		조선면업박람회 개최 (1926년)
427	사건	문화예술		동춘서커스 출범 (1927년)

번호	분류	범주	세부분류	내용
428	사건	종교생활		목포 역전 매축 (1927년)
429	사건	사회언론		신간회 목포지회 창립 (1927년)
430	사건	복지의료		공생원 설립 (1928년)
431	사건	종교생활		목포 공설시장 개업 (1929년)
432	사건	사회언론		목포 학생운동 (1929년)
433	사건	사회언론		목포 배화사건 (1931년)
434	사건	교육체육		목포시민운동회 (1931년)
435	사건	산업경제		목포 북항 개발 (1935년 이후)
436	사건	산업경제		목포, 3대항 6대도시 도약 (1935년)
437	사건	교육체육		목포고보 설립 운동 (1935년)
438	사건	문화예술		목포의 눈물 탄생 (1935년)
439	사건	문화예술		호남평론 발행 (1935년)
440	사건	교육체육		목포상업학교, 전국야구대회 준우승 (1936년)
441	사건	사회언론		신사참배 반대 운동 (1937년)
442	사건	사회언론		목포방송국 개국 (1942년)
443	사건	산업경제		행남사 설립 (1942년)
444	사건	사회언론		8.15 해방 (1945년)
445	사건	사회언론		건국준비위원회 목포지부 결성 (1945.8.17)
446	사건	사회언론		미군 목포 진주 (1945.10.18)
447	사건	사회언론		10월 사태 (1946.10.31)
448	사건	정치행정		미군정 시작 (1946.1.15)
449	사건	사회언론		목포방송국 개편 (1947.10.1)
450	사건	문화예술		안성현작곡집 발표 (1948년)
451	사건	정치행정		일본식 행정명칭 변경 (1948.4.1)
452	사건	사회언론		목포형무소 탈옥사건 (1949.9.15)
453	사건	사회언론		인민군 목포 진입 (1950.7.24)
454	사건	산업경제		한국은행목포지점 개설 (1950.6.12)
455	사건	교육체육		도립목포상과대학 승격(4년제) (1951.10.6)
456	사건	복지의료		성골롬반병원 개원 (1955.7.5)
457	사건	사회언론		목포 대화재 (1956년, 1963년)
458	사건	사회언론		목포 4.19 학생시위 (1960.4.26)
459	사건	사회언론		5.16군사정변으로 인한 목포시의회 해산 (1961.5.20)
460	사건	교육체육		목포사범학교, 목포교육대학으로 개편 (1963.12.16)
461	사건	사회언론		한일회담 반대 시위 (1964.6.4)
462	사건	사회언론		7대 국회의원 선거 파동 (1967년)
463	사건	사회언론		라디오목포(RMB) 개국 (1968.8.17)
464	사건	교육체육		국립목포대학(4년제) 신설 (1979.3.1)
465	사건	사회언론		5.18 목포항쟁 (1980.5.21)
466	사건	교육체육		목포 시내 고교평준화 시행 (1980.3.1)

번호	분류	범주	세부분류	내용
467	사건	산업경제		영산호 준공 (1981.12.8)
468	사건	사회언론		영산호 보존 환경투쟁 (1983년)
469	사건	사회언론		6.10 목포민주화항쟁 (1987년)
470	사건	산업경제		삼호조선소 개발 (1989~1994)
471	사건	사회언론		대북 쌀수송선 출항(목포-나진) (1991.7.27)
472	사건	정치행정		민선 지자체 출범 (1995년)
473	사건	산업경제		대불공단 완공 (1996.12)
474	사건	사회언론		목포 개항 (1897.10.1)
475	사건	사회언론		목포 개항 백주년 (1997.10.1)
476	사건	정치행정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당선 (1997.12.17)
477	사건	산업경제		목포항 국제여객선터미널 준공 (1998년)
478	사건	산업경제		서해안고속도로개통(목포-무안) (1998.8.25)
479	사건	사회언론		삼학도 복원사업 시작 (2000년)
480	사건	산업경제		하당 신도시 개발 (2001년)
481	사건	사회언론		목포-상해 정기선 취항 (2002년)
482	사건	정치행정		전남도청 남악 이전 (2005년)
483	사건	사회언론		무안국제공항 개항 (2007.11)
484	사건	사회언론		무안반도 통합 결렬 (1994~2009)
485	사건	사회언론		목포대교 개통 (2012.6.29)
486	사건	사회언론		세월호 목포항 거치 (2017년)
487	사건	산업경제		호남선 복선화 및 KTX 운행 (2004년)



【부록 II -2】 목포 근대건축자원 조사 목록표

번호	분류	유형	건물명	건립연도	규모	주구조	건물형태	지붕형태	지붕재료	주용도	등급
1	A-01	주거	목포진길 21 가옥	1951년	지상1층	목조	—자형	팔작	금속기와	상가	하급
2	A-02	주거	목포진길 21-2 가옥	1967년	지상1층	목조	—자형	우진각	슬레이트	주거	하급
3	A-03	주거	목포진길11번길 4-1 가옥	1958년	지상1층	목조	—자형	박공	강판	상가	하급
4	A-04	주거	번화로 17-1 가옥	1935년	지상1층	목조	—자형	박공	강판	주거	하급
5	A-05	주거	번화로 19-2 가옥	1957년	지상1층	목조	—자형	박공	개량지붕(강판)	주거	하급
6	A-06	주거	번화로 34 가옥	1963년	지상2층	목조	ㄱ자형	반박공	와가	상가	하급
7	A-07	주거	번화로 68-3 가옥	1937년	지상1층	목조	—자형	박공	일식기와+강판	주거	하급
8	A-08	주거	번화로 68-4 가옥	1937년	지상1층	목조	—자형	박공	시멘트기와+강판	주거	하급
9	A-09	주거	번화로 68-5 가옥	1956년	지상1층	목조	u	박공	와가	상가	하급
10	A-10	주거	번화로 68-7 가옥	1937년	지상1층	목조	—자형	박공	와즙	상가	하급
11	A-11	주거	번화로 68-8 가옥	1959년	지상1층	목조	—자형	박공	와즙	상가	하급
12	A-12	주거	마인게터로26번길 5 가옥	1951년	지상2층	벽돌조	—자형	우진각	일식기와	살림집	상급
13	A-13	주거	불종대길 15-1 가옥	1943년	지상1층	목조	ㄱ자형	팔작	일식기와	살림집	상급
14	A-14	주거	해안로173번길 46-1 가옥	1935년	지상1층	목조	—자형	팔작	강판	주거	하급
15	A-15	주거	북교길 31 가옥 (백년한옥)	1931년	지상1층	목조	ㄱ자형	팔작	시멘트기와	게스트하우스	상급
16	A-16	주거	불종대길 18 (문익수 가옥)	1908년	지상1층	목조	ㄱ자형	팔작	시멘트기와	살림집	상급
17	A-17	주거	차범석길23번길 1 가옥	1937년	지상1층	목조	ㄱ자형	우진각+박공	개량지붕(강판)	주거	상급
18	A-18	주거	영산로40번길 18-7 가옥	1945년	지상2층	목조	—자형	박공	슬레이트	살림집	하급
19	A-19	주거	유동로16번길 1.1-1.3,3-1.3-2.5	1935년	지상1층	목조	—자형	우진각	강판	살림집	상급
20	A-20	주거	달성길 (하대운 가옥)	1943년	지상1층	목조	ㄱ자형	팔작	시멘트 기와	살림집	상급
21	A-21	주거	불종대길 (심복주 가옥)	1913년	지상1층	목조	ㄱ자형	팔작	개량지붕(강판)	살림집	상급
22	A-22	주거	번화로 51 가옥	1935년	지상2층	목조	—자형	팔작	슬레이트	살림집	하급
23	A-23	주거	유동로42번길 11-3 가옥	1953년	지상2층	목조	—자형	우진각	강판	살림집	중급
24	A-24	주거	번화로 6-4 가옥	1935년	지상1층	목조	—자형	박공	강판	가옥	하급
25	A-25	주거	번화로 8 가옥	1935년	지상1층	목조	—자형	박공	강판	가옥	하급

번호	분류	유형	건물명	건립연도	규모	주구조	건물형태	지붕형태	지붕재료	주용도	등급
26	A-26	주거	영산로 44-2 가옥	1935년	지상1층	목조	ㄱ자형	박공	슬레이트	가옥	하급
27	B-01	상업	번화로 2 상가	1935년	지상1층	목조	—자형	우진각	일식기와	상가	하급
28	B-02	상업	번화로 17 상가	1935년	지상1층	목조	—자형	박공	강판	주거+비주거	하급
29	B-03	상업	번화로 19-1 상가	1951년	지상1층	목조	ㄷ자형	팔작	강판	상가	하급
30	B-04	상업	번화로 21 상가	1935년	지상1층	목조	—자형	우진각	일식기와	주거+비주거	하급
31	B-05	상업	번화로31-3 상가	1962년	지상2층	목조	ㄹ자형	우진각	슬레이트	상가	하급
32	B-06	상업	번화로 35-1 상가	1941년	지상1층	목조	—자형	우진각	슬라브	주거	하급
33	B-07	상업	번화로 36-2 상가	1951년	지상2층	목조	—자형	박공	강판	상가	하급
34	B-08	상업	번화로 39-4 상가	1935년	지상1층	목조	—자형	박공	슬레이트	상가	하급
35	B-09	상업	번화로 40-1 상가	1951년	지상2층	목조	—자형	박공	슬레이트	상가	하급
36	B-10	상업	번화로 40-2 상가	1951년	지상1층	목조	—자형	박공	스레이트	상가	하급
37	B-11	상업	번화로 46 상가	1971년	지상1층	목조	—자형	박공	와즙	상가	하급
38	B-12	상업	번화로 46-8 상가	1958년	지상2층	목조	—자형	평지붕	아연즙	상가	하급
39	B-13	상업	번화로 53 상가	1935년	지상1층	목조	—자형	박공	와가	상가	하급
40	B-14	상업	번화로 53-1 상가	1935년	지상2층	목조	—자형	박공	강판	상가	하급
41	B-15	상업	번화로 58-1 상가	1954년	지상2층	목조	—자형	팔작	와즙	상가	하급
42	B-16	상업	번화로 64 상가	1955년	지상2층	목조	—자형	박공	슬레이트	상가	하급
43	B-17	상업	번화로 65 상가	1935년	지상2층	목조	—자형	박공	와즙	상가	하급
44	B-18	상업	번화로 66 상가	1955년	지상2층	목조	—자형	박공	와즙	상가	하급
45	B-19	상업	번화로 66-1 상가	1973년	지상2층	목조	—자형	박공	와즙	상가	하급
46	B-20	상업	번화로 66-2 상가	1956년	지상2층	목조	—자형	박공	슬라브	주거	하급
47	B-21	상업	번화로 67 상가	1935년	지상2층	목조	—자형	박공	슬레이트	상가	하급
48	B-22	상업	번화로 68 상가	1935년	지상2층	목조	—자형	박공	아연즙	상가	하급
49	B-23	상업	번화로 68-1 상가	1958년	지상2층	목조	—자형	박공	슬레이트	상가	하급
50	B-24	상업	번화로 72 상가	1958년	지상2층	목조	—자형	박공	슬레이트	상가	하급
51	B-25	상업	번화로 72-1 상가	1958년	지상2층	목조	—자형	박공	강판+슬레이트	상가	하급
52	B-26	상업	수강로 19-1 상가	1963년	지상2층	목조	ㄱ자형	반박공	아연즙	상가	하급

번호	분류	유형	건물명	건립연도	규모	주구조	건물형태	지붕형태	지붕재료	주용도	등급
53	B-27	상업	해안로165번길 46 상가	1984년	지상1층	벽돌조	—자형	팔작	슬레이트	상가	하급
54	B-28	상업	해안로229번길 2 상가	1959년	지상2층	벽돌조	—자형	우진각	슬레이트	상가	하급
55	B-29	상업	해안로229번길 3 상가	1955년	지상2층	목조	—자형	박공	슬레이트	상가	하급
56	B-30	상업	해안로229번길 5 상가	1958년	지상2층	목조	—자형	박공	와가	상가	하급
57	B-31	상업	해안로229번길 5-1 상가	1964년	지상2층	목조	—자형	박공	와가	상가	하급
58	B-32	상업	해안로229번길 5-2 상가	1951년	지상2층	목조	—자형	박공	와가	상가	하급
59	B-33	상업	해안로229번길 5-3 상가	1956년	지상2층	목조	—자형	박공	와가	상가	하급
60	B-34	상업	해안로229번길 10-4 상가	1960년	지상2층	목조	—자형	우진각	슬레이트	상가	하급
61	B-35	상업	해안로229번길 10-6 상가	1984년	지상2층	블록조	—자형	박공	와즙	상가	하급
62	B-36	상업	해안로229번길 27 상가	1935년	지상2층	목조	—자형	박공	와즙	상가	하급
63	B-37	상업	해안로249번길 30-1 상가	1969년	지상2층	목조	—자형	박공	와즙	상가	하급
64	B-38	상업	영산로59번길 (구 춘화당 한약방)	1929년	지상2층	목조	—자형	우진각+박공	개량지붕(강판)	상가	상급
65	B-39	상업	마인게터로40번길 (아도람미용실)	1935년	지상2층	목조	—자형	박공	개량지붕(강판)	상가	중급
66	B-40	상업	번화로 (여수여인숙)	1936년	지상2층	목조	—자형	박공	골함석	상가	중급
67	B-41	상업	영산로 (고현장식 상가)	1935년	지상2층	목조	—자형	우진각+박공	강판+시멘트기와	상가	중급
68	B-42	상업	해안로 235 외4 (형제천막)	1980년	지상2층	석조	—자형	박공	슬레이트	상가	중급
69	B-43	상업	해안로173번길 16-1 (신의운수)	1935년	지상2층	목조	—자형	우진각+박공	와즙	상가	중급
70	B-44	상업	해안로237번길 (대성유통)	1935년	지상2층	목조	—자형	박공	개량지붕(강판)	상가	중급
71	B-45	상업	해안로237번길 한주상사 (보광동 객주집)	1935년	지상2층	석조	—자형	박공	강판	상가	상급
72	B-46	상업	해안로237번길 29-1 상가 (부르스타치킨호프)	1935년	지상2층	석조	—자형	박공	골함석	상가	중급
73	B-47	상업	해안로237번길 (목포상회)	1935년	지상2층	목조	—자형	우진각+박공	강판	상가	중급
74	B-48	상업	번화로79번길 16-2 상가	1935년	지상2층	목조	—자형	우진각	슬레이트	상가	하급
75	B-49	상업	해안로237번길 (광명옷감상회)	1955년	지상2층	목조	—자형	박공	강판	상가	하급
76	B-50	상업	영산로59번길 (나들가게)	1963년	지상2층	목조	—자형	우진각	강판	상가	하급
77	B-51	상업	영산로59번길 (냥이의 하루)	1955년	지상2층	벽돌조	—자형	박공	박공	상가	하급
78	B-52	상업	번화로79번길 17,17-1 상가	미등재	지상2층	목조	—자형	모임	슬레이트	상가	하급

번호	분류	유형	건물명	건립연도	규모	주구조	건물형태	지붕형태	지붕재료	주용도	등급
79	B-53	상업	만호로 (안덕상회)	1935년	지상1층	목조	—자형	박공	슬레이트	상가	상급
80	B-54	상업	해안로 (대우천막)	1951년	지상2층	석조	—자형	평지붕	평슬라브	상가	상급
81	B-55	상업	수강로4번길 (삼향FRP페인트사)	1954년	지상3층	석조	—자형	박공	평함석	상가	하급
82	B-56	상업	수강로4번길 (수창상회)	1951년	지상1층	석조	—자형	박공	평함석	상가	하급
83	B-57	상업	수강로4번길 (전남상회)	1955년	지상2층	목조	—자형	우진각	슬레이트	상가	중급
84	B-58	상업	영산로 (한마을 떡집)	1935년	지상2층	목조	—자형	팔작	시멘트기와	상가	중급
85	B-59	상업	영산로 (보람야채마트)	1958년	지상2층	목조	—자형	박공	강판+시멘트기와	상가	중급
86	B-60	상업	영산로 (목갤러리)	1951년	지상2층	목조	—자형	우진각	슬레이트	상가	중급
87	B-61	상업	영산로10번길 (유달문구)	1935년	지상1층	목조	—자형	우진각	강판	상가	하급
88	B-62	상업	영산로40번길 (중앙수산)	1962년	지상2층	목조	—자형	우진각	강판	상가	하급
89	B-63	상업	해안로173번길 36 상가	1935년	지상2층	목조	—자형	우진각,팔작	골함석,슬레이트	상가	하급
90	B-64	상업	해안로229번길 (야마하)	1935년	지상2층	목조	—자형	팔작	일식기와	상가	중급
91	B-65	상업	해안로229번길 (구 대림양복점)	1935년	지상2층	목조	—자형	박공	강판	상가	중급
92	B-66	상업	삼일로 (삼익모직)	1935년	지상2층	목조	—자형	박공	슬레이트	상가	중급
93	B-67	상업	유동로16번길 (대명관)	1936년	지상2층	목조	—자형	우진각	강판	상가	중급
94	B-68	상업	유동로36번길 15 상가	1935년	지상1층	목조	—자형	팔작	강판	상가	하급
95	B-69	상업	해안로 105번길 (구 유곽)	미등재	지상2층	목조	—자형	박공	슬레이트	상가	상급
96	B-70	상업	번화로 36-1 상가	1955년	지상2층	목조	—자형	우진각	슬레이트	상가	하급
97	B-71	상업	해안로 127번길 (연희네슈퍼)	1955년	지상1층	목조	—자형	박공	슬레이트	상가	중급
98	B-72	상업	해안로 249번길 (현미식당)	1935년	지상1층	목조	—자형	박공	슬레이트	상가	하급
99	B-73	상업	번화로 54-1 상가	1959년	지상2층	목조	—자형	맞배	슬레이트	상가	하급
100	B-74	상업	번화로 58 상가	1935년	지상2층	목조	—자형	맞배	슬레이트	상가	하급
101	B-75	상업	번화로 48 상가	1964년	지상2층	목조	—자형	박공	슬레이트	상가	하급
102	B-76	상업	해안로229번길 6 상가	1951년	지상1층	목조	—자형	맞배	슬레이트	상가	하급
103	B-77	상업	해안로229번길 2-1 상가	1949년	지상2층	목조	—자형	우진각	슬레이트+금속기와	상가	하급
104	B-78	상업	해안로229번길 13-1 상가	1956년	지상2층	목조	—자형	팔작	슬레이트	상가	하급
105	B-79	상업	해안로237번길5 상가	1949년	지상2층	벽돌조	—자형	평지붕	슬레이트	상가	상급

번호	분류	유형	건물명	건립연도	규모	주구조	건물형태	지붕형태	지붕재료	주용도	등급
106	B-80	상업	해안로229번길 6-1 상가	1951년	지상1층	목조	ㄱ자형	박공	슬레이트	상가	하급
107	B-81	상업	만호로 38번길 (관해장여관)	1962년	지상1층	목조	ㄱ자형	팔작	개량지붕(강판)	여관	중급
108	B-82	상업	해안로 259번길 (동일여인숙)	1935년	지상2층	목조	—자형	박공	강판+일식기와	여인숙	하급
109	C-01	산업	번화로 60-2 공장	1935년	지상2층	목조	—자형	박공	슬레이트	주거+비주거	하급
110	C-02	산업	만호로 7 창고	1935년	지상1층	목조	—자형	박공	골함석	창고	중급
111	C-03	산업	해안로102 창고	1983년	지상1층	철골조	—자형	박공	슬레이트	창고	하급
112	C-04	산업	만호로 (현대싱크)	1957년	지상2층	석조	—자형	박공	평함석	공장	중급
113	C-05	산업	만호로 (진성어망)	1958년	지상1층	석조	—자형	박공	평함석	창고	상급
114	C-06	산업	만호로 14 공장	1959년	지상1층	석조	—자형	박공	평함석	공장	중급
115	C-07	산업	영산로 40번길 17 창고	1960년	지상2층	석조	—자형	박공	평함석	창고	하급
116	C-08	산업	영산로 40번길 22 창고	1961년	지상1층	석조	—자형	박공	평함석	창고	중급
117	C-09	산업	수강로 4번길 (신광상사)	1962년	지상2층	석조	—자형	박공	평함석	창고	상급
118	C-10	산업	송도길24-1 창고	1963년	지상1층	석조	—자형	박공	평함석	창고	상급
119	C-11	산업	송도길 24-3창고	1964년	지상1층	석조	—자형	박공	평함석	창고	하급
120	D-01	종교	차범석길 35번길 (목포북교동교회)	1958년	지상2층	철콘조	—자형	박공	평함석	종교	상급

